

아침음악살롱 두번째 이야기
2013. 5. 30(토) AM 11:00 | 별무리극장

아침음악살롱

Morning

오전 11시에 떠나는 추억.

Music

그리고... 여행

Sal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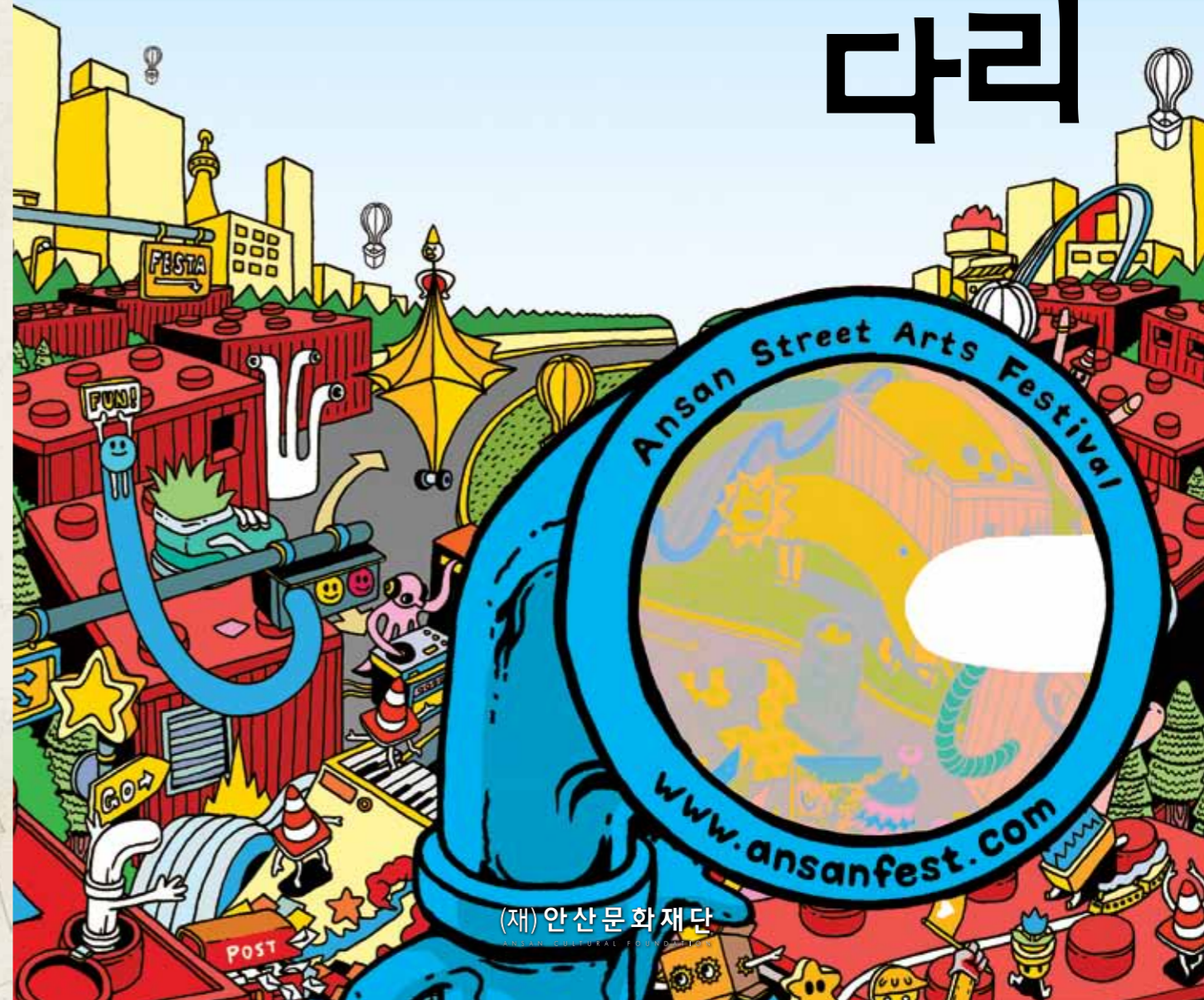


커피북는집
'밀키브라운'과
함께 합니다.

홀수달 목요일 아침의 "작은 여유"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늘 다리

May + June 5+6 2013 Vol.36
Bimonthly Magazine of Ansan Cultural Foundation



하늘다리

안산문화재단 감성문화지

Ansan Cultural Foundation Magazine

2013. 5+6 vol.36

2013 5·6월호(통권 제36호) · 비매품

발행인 김철민

편집인 김인숙

발행처 (재)안산문화재단(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전화 080.481.4000

팩스 031.481.4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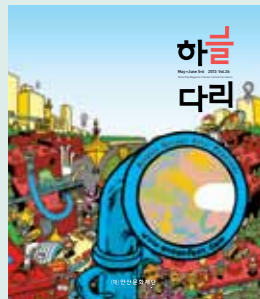
기획 기획홍보부

편집 및 디자인 (주)이안커뮤니케이션(02.850.3160~79)

출력 및 인쇄 예원그래픽스

www.ansanart.com

「하늘다리」는 무지개를 뜻하는 말로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하는 안산문화재단의 의지입니다.



Cover Story

5월 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렸다. 도시의 변신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진 이번 공연에는 안산거리 예술 크리에이터 7개작을 포함해 국내 14개작, 해외 6개작으로 총 27개 공식 초청작품을 선보였다.



Contents

04	ASAC Essay	32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
06	포토에세이	46	ASAC 문화사업
	5·6월 공연 캘린더		
	ASAC Special		ASAC Culture Trend
10	Message 안산문화재단 김철민 이사장	52	테마가 있는 미술 - 그림 속 신화이야기 8
14	People 정치 9단 크레온의 변모 - 배우 신구	58	테마가 있는 공연 - 명작으로 읽는 세계 연극사 2
		64	테마가 있는 음악 - 베르디, 바그너 탄생 200주년 특집 2
	ASAC Stage	72	문화탐방 - 감골시민회 마을공동체 문화사업
20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ASAC News
24	뮤지컬 <빨>	76	단원미술관 개관 이모저모
26	연극 <안티고네>	78	단원미술관 대관 일정 및 안내
28	연극 <인디아블로그>	80	문화 나누미 안내
30	아침음악살롱 2 - 팝 피아니스트 윤한	82	리뷰





그곳의 내일은 쉽게 오지 않는다.
하루를 보내려면 온종일 그물코를 꿰어야 하고
어물전에 나가 앉았어야 하고
물에서 온 편지도 읽어야 하고 바람에
스러진 담장도 일으켜야 한다.
그곳에 내일이 오려면 어제 아침과
꼭 닮은 오늘 저녁을 보내야만 한다.
언제나 내일은 오늘보다
쉽게 오지 않는 법이다.

05
MAY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공연 달력

Ansan Artcenter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기 일상 인문학 강좌 19:30	2	3 기 안산국제제거리극축제	4 기 안산국제제거리극축제 기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1:00, 15:00
5 기 안산국제제거리극축제 기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1:00, 15:00	6 무대점검	7	8 수 다문화가족음악회 19:30	9	10 기 무대야 놀자 10:30 기 뮤지컬 <빨> 20:00	11 정 제3회 정기연주회 19:00 기 뮤지컬 <빨> 15:00, 19:00
12 수 푸른청소년오케스트라 18:00	13 무대점검	14 수 아이넷 방송 2회 공연 13:00	15 수 아이넷 방송 2회 공연 13:00 수 국악단 정기연주회 19:30	16 예총 지구촌 예술축제	17 수 연극 <친정엄마 2박3일> 15:00	18 수 오물자백남무용단 '정기발표회' 19:30 수 연극 <친정엄마 2박3일> 15:00/19:00
19 무대점검	20	21	22	23 기 몽골공연	24 기 몽골공연 수 컬투쇼 20:00 기 연극 <안티고네> 20:00	25 기 몽골공연 수 컬투쇼 15:00, 19:00 기 연극 <안티고네> 16:00
26 기 연극 <안티고네> 16:00	27 무대점검	28 수 편편 클래매직 콘서트 10:00	29 기 아침음악살롱 2 11:00	30 수 돈키호테 10:00, 13:30	31 수 돈키호테 10:00, 13:30	

기 기획공연 수 수시대관 정 정기대관

www.ansanart.com

Calendar

06
JUNE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수 장연주 클래식기타독주 17:00 수 전국학생음악콩쿠르
2	3 무대점검	4 	5 수 영어연극발표회 13:00 정 돈키호테 10:00, 13:30 정 안산시청소년종합 예술제(예선)	6 정 안산시청소년종합 예술제(예선)	7 정 돈키호테 10:00, 13:30 수 안산교육지청 예술제	8 수 카운터 펀치기념공연 16:00
9	10 무대점검	11 수 아이넷 방송 2회 공연 13:00	12 기 무대야 놀자 10:30 수 아이넷 방송 2회 공연 13:00	13 기 무대야 놀자 10:30 기 연극 <인디아블로그> 20:00	14 기 연극 <인디아블로그> 20:00	15 수 플라잉뮤지컬 <피터팬> 11:00/14:00/16:00 기 연극 <인디아블로그> 15:00, 19:00
16 수 플라잉뮤지컬 <피터팬> 11:00/14:00 기 연극 <인디아블로그> 14:00, 18:00	17 무대점검	18	19 수 오물자백남무용단 '정기발표회' 19:30	20 메세나연극	21 메세나연극 기 스웨덴 왕립발레단 수 연극협회 <유혹>	22 안산 여성 윈드 오케스트라 수 연극협회 <유혹>
23/30 수 연극협회 <유혹>	24 무대점검	25	26 기 무대야 놀자 10:30	27 건강음악회 19:00	28 정 책 먹는 여우 11:00	29 정 책 먹는 여우 11:00 정 제6회 안산성가합창제 19:00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니 관람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080-481-4000

2013년 5월 어린이날!!

안산문화재단
ASAC 가족예술극장 시리즈 9.

전 세계 최고의 동화판타지, 뮤지컬로 탄생!
“지혜 용기 진심 꿈”
아이 스스로 깨닫는 묘미!

Oz THE WIZARD OF 오즈의 마법사

마스크플레이가족뮤지컬
Copyright©HIKOSEN

마스크플레이뮤지컬의 화려한 귀환!
2011년 <피터팬>의 감동을 잇는 <오즈의 마법사>



5. 4(토)-5. 5(일) 토, 일요일 11시 , 3시 (2일 4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24개월 이상 관람가)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 A석 15,000원 / B석 10,000원
예매 콜센터 : **080-481-4000** 인터파크 : **1544-1555**
주최_안산문화재단 제작_부산 **MBC** 제작지원_극단 히코센



- 10 안산문화재단 김철민 이사장
- 14 정치 9단 크레온의 변모 - 배우 신구

Main theme
ASAC Special



안산문화재단
김철민 이사장 인터뷰

NEW Start! 안산 문화재단과 함께 문화 속으로



안산문화재단이 지난 4월 5일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재단 출범을 알렸다. 안산시 곳곳에서 문화와 예술이 서로 어울려 호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쳐갈 안산문화재단의 향후 방향은 어떻게 될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를 꾸려 나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을 터. 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 한발씩 전진, 하지만 후퇴는 없다는 신념으로 조금씩 그 발판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재단을 이끌어 갈 안산문화재단 이사장 김철민 안산시장을 만나 안산문화재단의 향후 사업 방향 등 재단에 대한 그의 로드맵을 들었다.

1. 안산문화재단이 공식적인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나섰습니다. 향후 재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산문화재단의 출범은 우리 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의미합니다. 우리 안산은 유서 깊은 문화유산을 간직한 문화·예술의 도시입니다. 실학자인 성호 이익선생을 비롯해, 조선후기의 최고화가 단원 김홍도 선생, 표암 강세황 선생 등 우리의 혼과 열이 깃들어 있는 역사와 전통의 고장입니다. 2세기는 문화와 예술이 인간의 삶의 질의 높이는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 안산문화재단은 시민 모두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2. 안산문화재단의 활성화 방안은?

안산의 문화·예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단체 또 일부 사람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76만 시민 전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불어 문화역량을 집중 시킬 수 있는 제도과 분위기 형성도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이에 재단과 기관, 문화예술인 그리고 시가 함께 참여 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 문화·예술의 발전은 모두가 하나 되어 자발적인 참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안산시 곳곳에서 문화와 예술이 서로 어울려 호흡할 수 있도록, 또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문화 향유를 위해 재단 이사장으로서 또 시장으로서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3. 안산문화재단 출범의 의의는?

기존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습니다. 새롭게 출범한 안산문화재단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라는 말처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우리 재단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시의 문화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기 위한 디딤돌이 되는 첫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예술 구현과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문화 정책을 적극 개발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다시 말해 안산문화재단의 출범은 문화·예술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문화도시의 실현을 앞당기는 초석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4. 재단에서 준비 중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경기도 10대 축제로 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는 도시의 변신, 거리의 재발견이라는 주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에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해 우리 시민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내 외 공연 팀과 예술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볼거리, 즐길 거리가 풍성한 안산거리극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 사람의 방관자도 없이 모두가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다 함께 즐기고 웃을 수 있는 안산국제거리극축제로 발전시켜 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듯 경주에서 이긴 것은 토끼가 아니라 성실함과 꾸준함을 가진 거북이인 것처럼 성공적인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나가겠습니다.

5. 끝으로 시민들과 우리 시 문화예술인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우리 시는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출발, 발전의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시는 많은 성장 속에서 그 뿌리를 문화예술에서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혹독한 비바람 속에서도 흔들림 없습니다. 그 뿌리가 깊은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안산을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문화재단이 '미중물'의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람은 알아주고 믿어주는 만큼의 역량을 보여 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산문화재단을 믿어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의 고장 안산, 모두가 향유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안산시를 위해 우리 문화재단은 이제 새로운 힘찬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취재 김선광, 박공주
사진 안산시청 제공





배우 신구 인터뷰

정치 9단 크레온의 변모

인터뷰 시간은 30분. 이는 사진 촬영시간을 포함한 시간이었다. 일정 조율의 험난한 산을 넘고, 배우 신구를 만나게 되기까지 건너야 할 강은 두어개 정도? 아니 사실 그보다 더 많은 산과 강을 넘어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기까지 통과해야 할 단계는 많았다. 하지만 아쉬운 만감이 교차한 지난 시간은 돌이킬 수 없다. 정신없던 지난 시간을 기억해 내며 최대한 당시를 떠올려 본다. 두근 두근 거렸던 휴게실 어느 한 구석을 떠올리며, 한창 연극 〈안티고네〉를 연습 중인 배우 신구를 조심스레 만나러 가 본다.

명품배우는 명품 공연에서 빛을 발한다. 보석이 아름다운 여인의 목에서 빛을 발하듯 말이다. 최근 막을 올린 한태숙 연출의 연극 〈안티고네〉는 바로 그런 연극이다. 신과 운명에 관한 이야기를 재해석 해낸 것도 있지만 쟁쟁한 배우들의 캐스팅에서부터 눈길을 끈다. 노화된 정치가 크레온으로 분한 배우 신구를 비롯해 안티고네를 연기한 배우 김호정, 예연자를 맡은 배우 박정자까지 이름만으로도 '이 연극 뭐지?' 하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잠자는 시간 이외에는 미친 듯이 극에 빠져드는 이 배우들. 그들의 호연을 위해 안산문화재단에서도 한 몫 거들었다. 오는 5월 24일부터 25일, 26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는 연극 〈안티고네〉가 막을 올린다. 고전을 사랑하는 관객은 물론, 인간 존재의 향수를 느껴 볼 수 있는 명품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극 공연을 앞두고 연극 〈안티고네〉를 빛내고 있는 배우 신구를 만나 보았다.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이니만큼 몹시 힘이 든다고 했지만



만 그만의 열정을 쏟아 모든 배우와 함께 연극을 빚어가고 있었다. 잠자는 시간 이외에 미친듯이 달려붙고 있다고 하는 그의 말에서 나이를 무색케 하는 열정이 느껴졌다.

오랜만의 연극 무대인데 어떠신가요?

새롭게 만들어내는 작업이라 힘드네요. 잠자는 시간 외에는 연극에 미친듯이 달려붙고 있지만 워낙 자체가 그리스 비극인데다 일상적인 인간이 아니라 운명과 신과 다투야 하는 작품이다 보니 그 무게를 감당하기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무대가 긴 삼각형의 경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발성이나 움직임, 자세 어느 하나라도 철저히 않으면 배우가 힘들어지고 극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튼 오랜만에 돌아온 무대인데 만만치 않은 건 사실이에요.

연출가 한태숙 선생님과 처음 작품이라고 들었는데요.

〈안티고네〉는 국립극단에서 활동하던 시절에도 접해보지 못했던 작품이었죠. 이번 기회에 한태숙 연출가와 함께 작품할 수 있어 기쁘니



다. 지난 번에 한태숙 연출가의 <오이디푸스>를 봤는데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소포클레스의 연작을 한태숙 씨가 하면 비슷한 그림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뒤늦게나마 찾아온 귀중한 경험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죠.

영화, 드라마 등에서 다채로운 캐릭터로 사랑받아오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무거운 배역이신거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는 되는대로 기회가 오면 하는 것이지요. 연극도 마찬가지로 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언제나 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으니 기회가 된다면 언제나 잡아야죠. 이번 캐릭터는 굉장히 어두우면서 고집센 인물이에요. 노획한 정치가가 그렇듯 자신의 가족을 버릴 만큼의 신념을 지녔지만 그만큼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안티고네>에서 연기하신 크레온이라는 인물은 어떤 사람인가요?

악역이라고들 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악역이라기보다는 그 역할에 충실했던 정치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크레온의 입장에서는 악역이 아니죠. 크레온은 국가 유지를 위해 제도법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겠다는 보수적인 인물이지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강경해서... 부드럽지 못해서 꺾인 격이죠. 좀 어리석고 우매하다고 할까요? 정통성이 약한 군주다 보니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던 것인데 그렇게 해서 결국 다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지만 한태숙 연출가는 이번 연극에서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부여하려고 했어요. 기존의 강직하고 휘지 않는 성격의 크레온이 아니라, 좀 부드러운 이미지가 가미되면서 노획한 인물. 양면성이 있는 그런 인물로.

하루에 12시간씩 연습에 매진하신다고 하시는데 특별한 건강관리 비결이 있으신가요?

연기자의 기본은 체력이예요. 무대에서 그건 기본이죠.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우지는 않지만 꾸준히 걷기 운동을 해오면서 나름대로 컨디션 조절을 합니다.

연극 <안티고네>를 잘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극 <오이디푸스>를 모른다면 이 연극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안티고네의 이야기는 오이디푸스를 이해해야 알 수 있거든요. 왜 이들이 치열하게 싸우게 됐는지, 운명의 뜻이라는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인간의 운명을 왜 바꿀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통해 이해하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전은 심오하지만 오래도록 이어져 오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알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연극 <안티고네>를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서울을 시작으로 안산, 대전 공연에서 기대는?

다른 기대가 있나요. 무사히 6월까지 있을 공연을 마치는 것 뿐. 지방 공연은 짧게 잡혀 아쉽게 됐지만 서울까지 나들이 올 필요 없이 지방에 사시는 분들에게도 <안티고네>를 보여줄 기회가 와서 좋죠. 열심히 연습한 동료 배우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취재 이지현
사진 장석훈

직장생활 서바이벌,
코믹살벌 코미디!!!

살벌

2013. 5.10(금)~5.11(토)

평일 8시 / 토 3시,7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01



- 20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 24 뮤지컬 <불>
- 26 연극 <안티고네>
- 28 연극 <인디아블로그>
- 30 아침음악살롱 2 - 팝 피아니스트 윤한
- 32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

Main theme

ASAC STAGE

회오리 바람 타고
오즈의 나라로

5월 어린이날! 마스크플레이 뮤지컬



거대한 회오리 바람에 휩쓸려 마법의 나라로 날아온 도로시! 집에 돌아가고 싶은 도로시에게 동쪽마녀 글린다는 오즈의 마법사가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알려준다. 오즈의 마법사를 향해 떠나는 중 지혜를 원하는 허수아비, 용기를 원하는 사자, 따뜻한 마음을 원하는 나무꾼을 만나 함께 모험을 떠난다. 여행을 하는 동안 사악한 서쪽마녀와 속임수에 능한 에메랄드 성의 마법사를 만나 온갖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전세계 최고의 동화 판타지 <오즈의 마법사>가 뮤지컬로 탄생했다. 부산 MBC, 45년 전통의 일본극단 히코센(HIKOSEN)과 공동으로 제작한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는 5월 가족의 달에 가족끼리 볼만한 공연으로 추천한다.

날아가는 도로시의 집... 다양한 특수효과 볼만
<오즈의 마법사 The Wizard of Oz>는 1900년에 L. 프랭크 바움이 쓴 <오즈의 놀라운 마법사>가 원작으로 오즈라는 상상의 세계에서 어린소녀 도로시와, 나무꾼, 허수아비, 사자의 꿈과 모험을 그린 명작동화. <오즈의 마법사>는 20년 이상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타이완에서도 최고의 명품뮤지컬로 각광받고 있으며, 특히 극단 히코센의 섬세한 마스크는 물론 플라잉으로 날아가는 도로시의 집, 다양한 특수효과 등으로 애니메이션에서만 느낄 수 있는 재미와 상상력을

불러일으킨다. 모험 환타지를 잘 표현한 감미롭고 신나는 음악 역시 놓칠 수 없는 매력 포인트다.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안산문화재단은 부산 MBC와 45년 전통을 자랑하는 일본극단 히코센(HIKOSEN)이 공동제작한 마스크플레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선보인다.

기존 인형극과는 차원이 다른, 섬세한 표정과 역동적인 마스크플레이 어린이 봐도 손색없는 수준 높은 무대와 음악!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는 주인공 금발소녀 도로시와 허수아비, 사자, 양철 나무꾼 등 캐릭터들의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섬세하게 제작된 마스크, 애니메이션을 통해 익숙한 전문 성우들의 캐릭터 목소리, 그리고 숙련된 배우들의 연기는 마치 동화 속 주인공들이 눈앞에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플라잉으로 날아가는 도로시의 집, 눈 앞에서 물에 녹아 사라져 버리는 서쪽마녀, 3m가 넘는 오즈대왕 형상 등의 다양하고 신비로운 무대 특수효과들은 동화 속 판타지 표현을 극대화 시켜주기에 충분하다. 부산MBC에서는 마스크플레이 뮤지컬 <오즈의 마법사>를 한국 공연화 하는데 있어 한국 정서에 맞게 공연을 완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드라마 장면 일부를 한국정서에 맞춰 새롭게 각색하고, 장면 음악도 일부 편곡하고 템포를 빠르게 하여 한국 관객들이 흥미롭게 빠



저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버전을 완성하였다. 마스크플레이 뮤지컬의 특성이 성우들의 캐릭터 목소리에 배우들이 연기하는 방식인 만큼 이번 <오즈의 마법사>는 특히 성우 캐스팅과 녹음에 각별히 신경을 썼으며, 애니메이션 효과를 살린 완성도 높은 성우들의 캐릭터 목소리 연기에 일본 제작사 히코센에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 있다.

어린이날 선보이는 ‘마스크플레이 뮤지컬’ 기존 인형극과 어떻게 다를까?

마스크플레이 뮤지컬은 45년 전통의 일본 극단 히코센(HIKOSEN)이 개발한 방법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캐릭터 마스크를 쓰고 공연하는 기법을 일컫는다. 유명가수와 성우가 사전에 녹음한 음악과 대사에 맞춰 무대 위 배우들이 연기하는 방식이기에 관객들은 연극적 상상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 있게 되며, 시종일관 꿈과 환상을 넘나드는 애니메이션의 세계를 함께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된다. 마스크플레이 기법은 1966년 일본 극단 히코센(HIKOSEN)에 의해 세계최초로 확립되어, 뮤지컬 장르에 있어서 가장 독창적이면서도 새로운 장르로 인식, 어린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주기에 가

장 적절한 방법론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4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극단인 만큼 마스크 제작에서부터 무대, 의상, 소품 등 모든 제작물이 극단 내 제작공방에서 자체 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서도 각 캐릭터 별 대표되는 표정을 선택해서 너무나도 섬세하고 정교하게 마스크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배우의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연기가 가능해졌다.

공연기획부

공연안내
5. 4(토) ~ 5(일) 11시, 15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인터파크 1544-1555

<오즈의 마법사>를 빛내는 스태프들

연출 / 구현철

연희단 거리패, 열린무대 활동, 現 극단 차이 대표, 2000 부산연극제 대상 연출상 수상, 2003 부산연극제 대상 희곡상 수상
대표작 <해바라기>, <길>, <실내극 · 어머니 · 실크커튼은 말한다>, <비닐하우스>, <변신>, <나쁜연극> 등
제작/연출 <트라우마>, <쇼타임>, <어떤 싸움의 기록>, <이상한 일들의 연속> 등

음악감독 / 정재환(아트모스피어)

2012년 여수 국제박람회 개최국 대표 수상공연 <바다의 소녀> 음악감독
뮤지컬 <불의 검>, <The Ghost>, <위대한 캣츠비>, <사마이야기>, <헛릿>, <바다의 소녀>
영화, 드라마 영화 <열혈남아>, <하늘정원>, <천생연분>, 대하사극 <연개소문> 미니시리즈 <Dr. 갱>, <안녕하세요 하느님>, <원더풀 라이프>, <형수님은 열아홉>, <군세어라 금순아>, <에릭의 동화>
K-POP MC the max, 예즈원, 심은진, 이지혜, 강성훈, AND, 제이워크, 김현정 등

안무 / 강희정

경성대학교 무용학과 졸업 / 일리노이 주립대학 무용과 MFA 석사 졸업
現, 예술공동체 <마르>대표, 경성대학교, 동서대학교, 부산예술대학 출강
대표작 <농담>, <로시난테의 편자>, <꿈지락거리는 구두를 벗다>, <순수> 외 다수 뮤지컬 <피터팬>, <자갈치>, <사랑은 비를 타고>, <빙고>, <가스펠>, <뮤즈의 부활> 외 다수

대본윤색 작가 / 최은이

뮤지컬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표절의 왕>, <러브 인 카푸치노>
가족뮤지컬 <로보카 폴리>, <반고흐와 해바라기 소년>, 동요콘서트 <구름빵> 외 다수

일본 극단 히코센(HIKOSEN) 제작팀

각본 吉川惣司 (YOSHIKAWA SOUJI) **연출** 渡部 三朗 (WATANABE MITSURO) **음악** 宇野誠一郎 (UNO SEIICHIRO) **안무** 川村 比呂美 (KAWAMURA HUROMI) **인형미술** YOSHIKAWA KIYOSHI **무대미술** ISHII MITSURU **의상** KANDORI KOUZEN **대도구 제작** ITO 무대공방 **인형, 의상, 소도구 제작** 극단 HIKOSEN 미술공방 **무대감독** KOBAYASHI HITOSHI **제작PD** 신지나 **대표이사** SUZUKI TORU

ASAC 우수소극장 시리즈 /
봄 작가, 겨울 무대 2012년도 최 우수 선정작

지친 직장인에게 권해주고 싶은 연극

퇴직한 대현이 운영하는 사슴농장으로 직장 야유회를 가게 된 김과장 일행. 무리의 리더인 이부장은 사슴피를 받아 마실 생각에 몹시 흥분되어 있다. 한편, 자신의 성과평가를 좌우하는 자이기에 김과장은 이부장 앞에서 안절부절이다. 야유회가 무르익을수록 김과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전전긍긍하느라 지치고, 못마시는 술을 들이켜 죽을 맛인데다, 아부의 왕 안대리를 죽이고 싶어 못 살겠다. 폭발한 김과장, 끔찍한 사고를 내려는 찰나, 일행은 사슴들의 눈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한다.



ASAC 우수소극장 시리즈 6번째 작품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ASAC우수소극장 시리즈 6번째 작품으로 <뽕>(정소정 작, 김관 연출)을 5월 10, 11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에서 선보인다.

2008년에 시작되어 올해 6회를 맞이하는 <봄 작가, 겨울 무대>는 매년 봄 신춘문에 희곡 부문에 당선된 신인 작가에게 신작집필을 의뢰, 우수작을 선정하여 연출가와의 무대화 작업을 통해 겨울에 작품을 올린다. 2012년에는 10작품 중 4작품을 선정하여 공연하였으며, 전문가와 일반 관객들로 이루어진 평가단의 모니터링에서 최우수작품으로 <뽕>을 선정하였다. <뽕>은 2012 부산일보 신춘문에 당선된 정소정 작가와,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십이야>를 통해 주목받고 있는 김관 연출이 함께 작업하였으며 2012년 총 4회 공연에서 객석점유율 116%를 기록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은, 이미 검증된 작품이다.

진혹한 현실을 연극적 감성으로 아우른 대한민국 직장인들을 위한 우화 <뽕>

직장 야유회가 벌어지고 있는 사슴농장. 김과장은 사슴의 눈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뽕>은 평범한 직장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일상과 환상의 경계에서 감각적으로 교차시키며, 오늘날의 사회를 날 선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꿈을 꾸며 살고 있는지 묻는다. 직장인들에게는 자신의 꿈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학생들에게는 직장인들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판타지, 그러나 지극히 현실적인, 현대사회를 향한 외침!

한 리쿠르팅 회사의 조사에 의하면 직장인의 70%가 실직이 가장 두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또 다른 리서치의 결과인데, 직장인 10명 중 9명이 일탈을 꿈꾸는데 그들이 가장 해보고 싶은 일탈의 내용이 '과감하게 사직서 제출'이라고 한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보통 사람들은 실직을 죽음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상상으로 하루를 견디고 있는 것이다. 어린 시절 우리는 장래 희망으로 멋진 꿈을 말하곤 했었다. 이제 다 커버린 우리에게 꿈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까? 이걸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고 싶었다. 어떤 꿈을 꾸며 살고 있는지, 좋은 꿈꾸고 계신지?

공연기획부



공연안내

5. 10(금) 20시 ~ 11(토) 15시, 19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인터파크 1544-1555



배우 신구(왼쪽), 김호정(오른쪽)

Antigone

그리스 비극을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인 <안티고네>

(재)안산문화재단에서는 좋은 작품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중견연출가 한태숙 연출의 <안티고네>를 (재)국립극단, 대전문화예술의전당과 공동제작하여 돌아오는 5월에 선보인다. <안티고네>는 그리스의 비극 시인 소포클레스(BC 496~406)의 대표작 중 하나로 오이디푸스 3부작 중 3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고전비극이다.

압도적 존재감, 전율적 감동이 찾아온다. 연극<안티고네>! 당신이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딸이라면? 혹은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은 오빠들의 여동생이라면? 아버지이자 오빠인 오이디푸스의 딸이자 동생, 아들을 침상에 끌어들이던 어머니 이오키타의 딸, 아버지는 자신의 두 눈을 찌르고 어미는 자살을, 두 오빠는 서로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가족의 대참사 속에서 살아남은 비극은 주인공 <안티고네>.

오이디푸스의 아들들은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니케스의 왕권을 둘러싼 전쟁 중 모두 죽음을 맞이하고, 크레온은 테베의 새로운 통치자가 된다. 크레온은 반역자인 폴리니케스의 시신을 매장하고 애도를 금지하며 광야에 버려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한다는 칙령을 선포한다. 그러나 안티고네는 오빠 폴리니케스의 시신을 매장하며 크레온과 첨예한 대립을 벌인다. <안티고네>에서 둘의 대립은 개인의 의지와 법질서 사이의 갈등 혹은 독재와 저항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다양하게 해석되며 지금도 끊임없이 철학자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무대, 음악, 영상, 안무 - 최상의 조합으로 최적의 효과를 빛다

안티고네는 거장부터 신예까지 연극계의 다양한 연령의 배우가 무대에 선다. 관록과 연륜이 돋보이는 배우 신구가 크레온을 맡아 젊은 열정 이상의 에너지를 보여주고 다부지면서 섬세한 연기를 펼치는 김호정이 크레온과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는 안티고네를 맡았다. 또한 연극계의 대모 박정자가 예언자 테레시아스로 분한다.

<안티고네>의 백미는 그녀와 크레온이 펼치는 대립과 싸움이 어떻게 표현 되는가에 있다. 그간 많은 안티고네 공연이 에너지의 증폭이 큰 육체적인 싸움을 보여주는 면이 두드러졌다면, 2013년 한태숙의 <안티고네>는 두 인물이 자신이 선택한 관점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는 대립의 극한을 보여준다.

공연기획부

공연안내

5. 24(금) 20시 ~ 25(토), 26(일) 16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인터파크 1544-1555

ASAC 공동제작 연극 안 티 고 네

관록과 연륜의 연기가 빛어내는 최고의 앙상블

오이디푸스의 두 아들 폴리니케스와 에테오클레스가 통치권을 두고 싸운다. 서로의 심장에 비수를 꽂아 넣은 채로 죽는다. 왕이 죽자 크레온은 테베의 새로운 통치자로 등극한다. 그는 테베를 지키려한 에테오클레스에게 상대한 장례를, 반역자 폴리니케스의 시신은 매장하고 애도를 금지하여 광야에 버려 짐승들이 뜯어먹도록 한다는 칙령을 선포한다. 동생 안티고네는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오빠의 시신을 매장하다 들켜게 되면서,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싸움이 시작된다.



ASAC 우수소극장 시리즈 7
연극 <인디아블로그>

떠나본 자만이 이 기분을 알까?

당장 인도로 갈 수 있다면.. 하지만 이 순간 자리를 뜰 수 없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등. 떠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대리만족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남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공감하는 일뿐. 그래서 연극을, 책을, 음악을 듣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여기 인도로 떠난 청년들이 있다. 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울고 웃고 하는 사이 그들의 추억은 관객들의 가슴을 '통' 친다. 유쾌! 상쾌! 통쾌! 이보다 더 재미있을까? 남의 여행 이야기에 폭 빠질 때쯤, 재미가 다가 아니라는 걸 깨달을지도 모른다. 연극 <인디아블로그>는 그런 연극이다. 잊힌 사랑을 떠올리며 눈물 한 방울, 추억을 생각하며 눈물 두 방울, 다시 가고 싶어 세 방울... 여행을 망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하는 본격 로드 연극. 그들을 만나러 지금 떠나보자.



대학로 인도 없이 열풍의 주인공, 본격 퇴사조장 연극!

2012년 대학로는 인도신드롬에 빠져있었다. 극단 연우무대가 선보인 로드씨어터 <인디아블로그>가 입소문을 타고 관객들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다. 연극 <인디아블로그>는 급기야 '퇴사조장 연극'으로 불리며 공연을 본 후 어디론가 떠나게 되는 웃지 못 할 후 폭풍을 낳기도 했다. 공연과 여행의 신선한 만남으로 신드롬을 일으킨 <인디아블로그>가 오는 6월, 안산문화예술의전당의 ASAC 우수소극장 시리즈 7번째 작품으로 공연될 예정이다.

배우들의 실제 인도여행기, 무대 위 자유가 되다!

인도, 젊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가야만 하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청년의 아지트라 이야기한다. 과연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 인도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인도에 가야만 하는가? 인도에서 우리 청년은 젊은 시절 느꼈던 현실의 좌절을 느끼게 해주고, 사랑을 떠올리게 만든다. <인디아블로그>는 우리 청년이 느끼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 누구나 바라는 운명적 사랑에 관해 유쾌하게 풀어 놓는다. 인도여행을 통해 느낀 감정을 한편의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코믹하면서도 감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인도 각 여행지에서 느낀 감성을 배우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음악으로 신나게 또는 애절하게 여행의 느낌을 전달한다.

이 시대 청년들의 이상과 현실, 운명과 사랑에 관한 보고서

이야기는 이렇다. 인도 델리 기차역, 각자의 여행을 계획하고 인도로 온 두 청년은 자이살메르로 향하는 기차를 기다리며 인도 여행을 함께 하기로 한다. 자이살메르, 우다이푸르, 바라나시, 디우 등을 함께 여행하며 이들은 그리움과 사랑, 이상과 현실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사랑과 운명적 사랑, 음악에 대한 열정과 현실적 어려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펼쳐 놓는다. 이들이 인도 여행을 통해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그들은 그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인도에서 만날 수 있을까?



공연안내

6.13(목) ~ 6.16(일)
평일 20시, 토 15시/7시, 일 14시/18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인터파크 1544-1555

공연기획부



Morning Music

피아니스트와 함께 떠나는 오월의 클래식 이야기

이야기와 함께 떠나는 낭만여행 아침음악살롱 2탄!!

제법 바람도 따뜻해졌다. 봄이 오긴 왔다.

아침 공기도 쾌청하니 이만한 날씨에 어울릴 부드러운 음악 한 곡을 듣고 싶지 않은가?

지난 3월에 열린 윤홍천 피아니스트의 슈베르트 여행기에 참여해 본 관객이라면

이번 5월에 있을 클래식 공연에도 관심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클래식계의 아이돌인 팝피아니스트 윤한이 5월의 아침을 상쾌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지난 3월 피아니스트 윤홍천의 사진과 함께 떠나는 슈베르트 여행기에 이어 5월엔 클래식계의 아이돌 “팝피아니스트 윤한”이 아침음악살롱의 문을 두드린다. 다양한 이력과 스타일리쉬한 외모로 먼저 주목을 끄는 윤한은 버클리 음악대학을 장학생으로 졸업하고 보스턴과 뉴욕을 중심으로 음악감독과 피아니스트로 활동하며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피아니스트 겸 싱어송라이터 윤한은 2010년 만남과 사랑, 이별을 그린 노래와 연주곡이 수록된 데뷔앨범 〈Untouched〉를 통하여 언론과 평론가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혜성처럼 떠오르기 시작하여 드라마 〈로맨스가 필요해〉 OST 그리고 화제의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OST에 수록된 〈그대를 그리다〉로 음악계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다.

단독콘서트 연속 매진, 공연계의 엄청난!

MBC TV 〈아름다운 콘서트〉 공동 MC겸 음악감독을 맡고 있는 윤한은 3번의 단독콘서트 연속 매진을 기록하였으며 ‘공연계의 떠오르는 블루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윤한은 국내 최초 액터-뮤지션 뮤지컬 〈모비딕〉의 주연으로 활동하면서 큰 호평을 받기도 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로맨틱하고도 섬세한 감성연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KBS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 OST 중 피아노 테마곡 〈그대를 그리다〉를 비롯해 〈카푸치노〉, 〈Kiss〉, 〈Marry me〉 등 감미로움으로 여성팬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따스한 감성의, 이 시대 가장 트렌디한 로맨틱 팝아티스트

매번 새로운 테마가 있는 콘서트로 관객몰이를 하고 있는 윤한은 스위트한 목소리와 워트있는 멘트로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영화음악과를 졸업한 그는 공연 프로그램으로 블루스, 재즈, 클래식, 팝, 가요 등 그만이 가진 독창적이고 세련된 다이나믹한 무대는 물론 즉흥 작곡, 편곡까지 기존 피아노 중심의 공연에서 느낄 수 없는 다재다능한 매력을 보여줄 것이다.

공연안내

5. 30(토) 11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인터파크 1544-1555

도시의 변신
거리의 재발견

2013 안산국제 거리극축제

경기도 10대 축제 중 하나인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5월 3일(금)부터 5일(일)까지 3일간 안산문화광장에서 펼쳐진다.

“도시의 변신 거리의 재발견”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질 이번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에
서는 안산거리예술 크리에이터 7개작 포함 국내 14개작 해외 6개작으로 총 27개 공식초청
작품을 선보인다. 그 외 기획프로그램인 자유참가작 ASAFringe 15개 작품과 부대프로그램
인 거리극학교, 게릴라공연, A!SSA CLUB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함께 만나 볼 수 있다.

안산거리예술 크리에이터 류성호 - Sound Picnic



1일차

디자인컨셉 CUBE CITY

축제의 첫날은 행사장 전체 디자인 컨셉인 CUBE CITY와 안산거리예술 크리에이터들의 작품을 눈여겨 볼 수 있다. 김조호<도시내시경:잠상>, 노영아<단원의 그림 속 풍경2013>, 한승구<안산의 얼굴>등 오직 안산만을 위해 창작된 작품들이 선보이게 된다.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개막프로그램은 단일 작품이 아닌 '안산사람들'을 테마로 재구성한 축하 프로그램이다. 축제 참가 공연팀이 갈라쇼 방식을 따라 각자의 공연에 주제를 담은 공연으로서, 4개 해외팀과 7개의 국내팀이 함께 화려한 무대로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개막전에 참가하는 팀 백호울&마티아스는 신체의 일부분을 정교하게 묘사하고 이에 미디어영상과 세련된 음향이 조합된 미디어 퍼포먼스이다. 르투라몽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버티컬 공중퍼포먼스 단체다. 완벽한 신체사용과 미니멀한 영상이 어우러진 세계 최고의 버티컬 퍼포먼스 팀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인섹트트로픽스는 미디어 공중퍼포먼스의 블루칩으로 급부상 받고 있는 스페인 공연단체다. 보여주는 영상과 미술 그리고 배우의 연기가 어우러진 독특한 형식의 미디어 퍼포먼스로 안산문화광장을 형광색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호주의 아모르피카는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아름답고 귀족적인 파이어 퍼포먼스, 서커스 티슈 등 전통적 방법을 구사하면서 음악과 무용을 결합하여 화려한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국내팀의 트러스트무용단은 '사람을 중심으로 함께 나눌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슬로건 아래 과거 창작 춤의 모호성을 비판하며 우리들의 삶이 담긴 춤, 역사와 영혼에 깨어있는 춤을 통해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오늘의 춤극이 되고자 노력하는 단체로서 단순한 동작의 나열이 아닌 보는 이로 하여금 인식될 춤의 언어를 표현한다. 극단 인형인은 열두명의 풍류 화랑들이 동물 띠 탈을 쓰고, 가면 뒤에 숨어있는 '내가 참인간이 되기 위해 벌이는 한바탕 소동을 복합 길놀이로 표현한다. 카니발 장르 타악 퍼포먼스인 '라퍼커션과 함께 최용석의 영상다큐 '안산사람들이' 스크린으로 비춰진다. 리로이는 이번 ASAFringe 자유참가팀 중 한 팀으로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생계수단이었던 불 막대기와 뉴질랜드 마오리부족의 전통무용 포이를 이용한 파이어 댄스를 선보이는 팀이다. 오랜 연습을 통해 습득한 여러 가지 장비들의 고난위도 스킬을 이용한 파이어 댄스를 통해 파이어 아트의 아름다움과 화려함을 느낄 수 있으며, 국내 유일 막대춤과 포이 마스터인 플로우 댄스 공연의 멋진 임팩트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고재경과 벌레들은 국내마임계의 다크호스로 부상중인 마임예술가 고재경의 마음을 오직 2013 안산국제거리극을 위해 새롭게 창조한 마임극과 함께 오페라 가수 정동효의 아리아가 개막현장을 더욱 가득 채울 것이다.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첫날 5월 3일(금) 거리퍼레이드&프리이벤트는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이어지며, 뒤 이어 개막전 메인프로그램은 오후 8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그림1 안산거리예술 크리에이터 노영아, <단원의 그림 속 풍경>
그림2 안산거리예술크리에이터 양길호, <인스큐즈미>
그림3 국내초청작(사) 트러스트무용단, SYS, <선택되지 않은 시간>

2일차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주말 공연들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있다. 다양한 서커스공연이나 마임공연, 코믹퍼포먼스 등 가족단위로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들이 주를 이룬다.

국내공식팀의 <동방의신기-비천>, <극단 몸풀-무지막스 서커스>, <배낭속 사람들-고통의 맛/변신>, <USD현대무용단 & 마임공작소 '판'-잠깐만>, <체험예술공간 꽃밭-거인의 책상>, <이희란-제기랄>, ASAFringe 자유참가작의 <고재경-엄마를 찾습니다>, <김찬수마임컴퍼니-삐어로 익살썩>, <서플코믹스-서플코믹스>, <이미지헌터빌리지-The Case>, <판토스-판토스 판타지아>가 축제 이튿날 찾아간다.

<동방의신기-비천>은 국내유일, 국내최고의 서커스단 '동춘서커스'가 전해주는 스텔과 감동의 무대! 12미터 높이의 대형구조물 위에서 펼쳐지는 고난이도의 서커스 묘기는 스텔과 폭소, 기쁨과 감동을 전해주며, 잊지 못할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기억을 남겨 줄 것이다. 극단 몸풀의 <무지막스 서커스>는 무지막지한 조련사들이 만들어내는 맹수들의 묘기다. 앞발 들고 일어나 앉기, 사람을 등에 올려 태우기, 기다란 코로 사람을 들어올리기 등, 단 한 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맹수들의 화려한 쇼가 펼쳐진다.

배낭 속 사람들의 <고통의 맛>과 <변신>은 이동형 거리극으로서 일상에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무대 위 작품으로 구성한 것이다. 일반적인 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방식의 표현을 위해 거리로 나선 배우들은 움직임, 도구, 소리, 마임, 이미지를 활용하여 거리를 미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 USD현대무용단 & 마임공작소 '판'의 <잠깐만>은 거리를 떠도는 공연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코믹 퍼포먼스다. 하루하루 시행착오를 겪으며 살아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관객들은 가슴 찡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체험예술공간 꽃밭의 <거인의 책상>은 미디어를 활용한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시켜 상상은 눈앞의 현실이 되고, 우리는 거인의 책상 위



그림4. 국내초창작 이희란, <제기랄>
그림5. 국내초창작 극단 몸풀, <무지막스 서커스>

안산국제거리극축제



06



07



08

에서 우리가 꿈꾸었던 환상의 여행을 떠나게 된다는 미디어 상상 놀이극이다. 이희란의 <제기랄>은 오브제의 보이지 않는 잠재력이 관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퍼포먼스로서 크기를 확장시킨 풍선을 관객들이 직접 만지고 즐길 수 있도록 체험을 유도하는 공연이다. 그 외 자유참가작인 ASAFringe 공연들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관객들을 찾아가는다.

또한 2일 차에서는 기획부대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어울려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인 예술놀이터도 함께 이루어진다. 단순한 체험프로그램을 넘어 재미있고 교육적인 요소까지 고루 조화시킨 프로그램이므로 많은 학부모와 아이들의 참여가 예상된다. 그 외 해외공식작부터 국내공식작은 물론 국내 아마추어 공연팀으로 이루어진 자유참가작 ASAFringe들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저녁에는 안산거리예술크리에이터자 부산 서브컬처 언더썬의 대부 류성호와 아시아를 주름잡는 대만 최고의 DJ Em Bangkok Electro가 함께 기획하고 진행하는 야심찬 프로젝트 <사운드피크닉&AISSA CLUB>은 남녀노소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야간거리파티다. 관객객들이 직접 참여하여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클럽음악 아래 몸을 맡기며 축제는 한층 더 뜨거워 질 예정이다.

그림6. 국내초창작 배낭 속 사람들, <고통의 맛>
 그림7. 국내초창작 동춘서커스, <몽방의 신기 비찬>
 그림8. 국내초창작 배낭 속 사람들, <변신>



3일차

화려한 마지막 공연, 축제의 절정 느껴져

축제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은 다채롭고 스펙터클한 공연들로 축제의 절정에 달아오를 예정이다. 또한 화려한 폐막 피날레로 3일간의 축제의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다. 3일차 공연에는 국내공식작인 탄파라댄스홀 <탄파라댄스홀>,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 <보트피플>, 온앤오프무용단 <사탕클럽의 마지막 쇼>, 고도 <오늘은 아무일도 없습니다. 아무일도...>, 프로젝트 날다 <티타니아>의 공연이 이어지고 곧바로 해외공식초청작들의 폐막행사가 이어진다.

탄파라댄스홀의 <탄파라댄스홀>은 유쾌하고 밝은 로큰롤 커플스윙댄스, 에너지 넘치는 리프트와 에어리얼, 다함께 즐길 수 있는 즉석 라인댄스 강습은 물론 관객과 댄서가 모두 주인공이 되는 라인댄스 합동공연이 펼쳐진다. 정의로운 천하극단 걸판의 <보트피플>은 나 하나 머물 공간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을 떠도는 보통 사람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극단 걸판 특유의 코미디로 녹여낸다. 배꼽 빠지는, 하지만 눈물겨운 새로운 형식의 바다 모험 극은 걸판의 거리극으로 익살스럽게 표현된다. 온앤오프무용단의 <사탕클럽의 마지막 쇼>는 신비한 우주와 나,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향하는 것인가, 등의 의문을 무용으로 표현한다. 극단 고도는 2012 안산국제거리극축제 ASAFringe 우수작 선정팀으로 올해 국내공식초청작으로 선정된 팀으로서 <오늘은 아무일도 없습니다. 아무일도...> 마임공연으로 다시 한 번 관객들을 찾아간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픈 과거를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반성한다는 의미하에 이루어지는 공연이다. 프로젝트 날다의 <티타니아>는 과천축제와의 공동제작한 공연으로서 올해 처음 시도되는 합작프로젝트공연이다.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의 등장인물인 요정 '티타니아'를 소재로 하는 국내 최초, 최대 규모의 공중퍼포먼스로서, 조명, 불꽃, 대형마차, 크레인 등을 이용한 스펙터클한 무대와 형형색색 요정들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공중 퍼포먼스를 만날 수 있다.

축제 마지막날 빼놓을 수 없는 폐막프로그램으로는 화려했던 3일간의 축제를 마무리하고 내년의 축제를 기약하는 의미를 가진다. 2팀의 해외공연단과 2팀의 국내공연단이 주를 이뤄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성공적인 마지막을 축하한다.

안산문화광장 홈페이지 외벽에서 프랑스 공연단 르투리몽의 <여의조각상의 춤>공연에 이어 스페인 공연단 인세토티트로픽스의 <은하계의 까뷰섹터를 찾아서>의 미디어 공중퍼포먼스로 안산문화광장의 하늘을 가득 채운다. 이어서 도심광장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을 예술불꽃 '화랑'의 불꽃놀이 축제 피날레를 장식하며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의 3일간의 일정은 이로서 모두 마무리된다.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펼쳐지는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거리예술을 통한 도시와 시민의 만남, 그리고 축제를 통한 예술과 놀이의 즐거움을 약속한다. 그리고 일상과 비밀상을 넘나드는 거리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2013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홈페이지 (<http://ansanfest.com/2013>) 또는 축제사무국(031-481-0535)으로 하면 된다.

축제사무국



그림9. 국내초청작 프로젝트 날다 <티타니아>
그림10. 거리축제-국내초청작 걸판 <보트피플>



Ansan Festival Program



5월 3일(금)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일정

5월 3일(금)								
사이트	S1	S2	S3	S4	S5	S6	S7	
13:00-15:30	〈Open Rehearsal〉							
16:00			아무일도... 30'	냉정과 열정사이 55'	더케이스 20'	삐에로악살쇼 30'	러시아민속공연 20'	
16:30							동방의신기 40'	
17:00	생활의발견 40'	제기랄 20'			변신 20'	서플코믹쇼 30'		
17:30		흔들어 주세요~ 50'		원맨밴드 25'			러시아민속공연 20'	
18:00				냉정과 열정사이 55'		삐에로악살쇼 30'		
18:30					고통의맛 30'			
19:00	생활의발견 30'				달콤한집 20'		사탕클림의 마지막쇼 50'	
19:30	개막식 퍼레이드		아무일도... 30'		더케이스 20'	도시내시경 150'		
20:00								
20:30				개막공연 "안산이야기"				
21:00								
21:30								

- 관객과의 대화 - 안산이야기 / 페스티발하우스 / 11:00~12:30
- 게릴라공연 - '빌레들' (고재경과 대학생 서포터즈가 만드는 축제 해프닝) / 어디에서나 / 아무 때나

그림11. 해외초청작 NOTHING 백호울&미티아스
그림12. 해외초청작 로투리움, (여인조각상의 춤)
그림13. 해외초청작 Shake shake shake3, (Spictacle)

5월 4일(토)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일정

5월 4일(토)								
사이트	S1	S2	S3	S4	S5	S6	S7	
13:00		엄마를 찾습니다 25'	판토스 30'		똘따라 맨스홀 45'	변신 20'	베에로악살쇼 30'	동방의신기 40'
13:30		흔들어 주세요~ 50'						삼일유가 120'
14:00	생활의 발견 40'				댄스워드 쿵팍25'			
14:30			공존 20'					
15:00	밥짓는냄새 30'		아무일도... 30'	냉정과 열정사이 55'	열두띠 풍류난장 60'	변신 20'	베에로악살쇼 30'	
15:30		잠깐만 40'						
16:00	신호유희 30'		판토스 30'		똘따라 맨스홀 45'	보트피플 30'		익스큐즈미 30'
16:30	아모르피카 10'	레드카펫 30'				셔플코믹쇼 30'		
17:00	생활의 발견 40'		제기랄! 20'	원맨밴드 25'				동방의신기 40'
17:30			아무일도... 30'	너영나영 강강술래 60'	고통의맛 30'			
18:00		흔들어 주세요~ 50'		냉정과 열정사이 55'	보트피플 30'			
18:30					더케이S 20'			
19:00		공존 20'			달콤한집 20'			
19:30	아모르피카10' 다페르튜토20'	레드카펫 30'		제기랄! 20'			사랑클럽의 마지막쇼 50'	
20:00				은하계의 까뮤새타를 찾아서 50'		거인의책상 50'	도시 내시경 150'	
20:30	티타니아 50'						무지막지 서커스 40'	
21:00				나똥포60' 15'				
21:30			.SYS- 선택되지 않은시간 60'		플로우 아트댄스 10'			

- 관객과의 대화 - 안산이야기 / 페스티벌하우스 / 11:00~12:30
- 케릴라공연 - '벌레들' (고재경과 대학생 서포터즈가 만드는 축제 해프닝) / 어디에서나 / 아무 때나

5월 5일(일)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일정

5월 5일(일)								
사이트	S1	S2	S3	S4	S5	S6	S7	
13:00		엄마를 찾습니다 25'		냉정과 열정사이 55'				삼일유가 120'
13:30		레드카펫 30'			댄스워드쿵팍 25'	셔플코믹쇼 30'		
14:00			판토스 30'	원맨밴드 25'	고통의맛 30'			
14:30	밥짓는냄새 30'	제기랄! 20'				보트피플 30'		
15:00		잠깐만 40'			열두띠 60'			
15:30	아모르피카 10'		아무일도... 30'		고통의맛 30'			
16:00	워브갸리듬 40'	흔들어 주세요~ 50'		냉정과 열정사이 55'				익스큐즈미 30'
16:30						셔플코믹쇼 30'		
17:00	신호유희 30'		판토스 30'	너영나영 강강술래 60'	변신 20'			
17:30	밥짓는냄새 30'	레드카펫 30'				보트피플 30'		
18:00	워브갸리듬 40'		공존 20'	냉정과 열정사이 55'		댄스워드쿵팍 25'		
18:30		잠깐만 40'						
19:00				제기랄! 20'	달콤한집 20'			
19:30	아모르피카10' 다페르튜토20'		아무일도... 30'	나똥포60' 15'			도시 내시경 150'	무지막지 서커스 40'
20:00	티타니아 50'			은하계의 까뮤새타를 찾아서 50'		거인의책상 50'		
20:30								
21:00				페막식 Retouramont 플레이밍 불꽃화랑				
21:30								
22:00								
22:30								
23:00								
23:30								

- 관객과의 대화 - 안산이야기 / 페스티벌하우스 / 11:00~12:30
- 케릴라공연 - '벌레들' (고재경과 대학생 서포터즈가 만드는 축제 해프닝) / 어디에서나 / 아무 때나
- ※ 공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연극놀이터 해마루와 함께하는 무대야놀자

연극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연극’이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을까? 보는 연극이 아닌 참여하는 연극으로 삶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고 한다. 연극놀이터 해마루는 이러한 연극을 지향한다. 함께 무대에 서는 경험이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서 보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생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토끼의 간을 뺏아 온 자라의 이야기를 무대에 녹여 낸 연극놀이터 해마루의 연극 속을 들여다 본다.

연극놀이터 해마루는 누구나 연극을 통해 삶을 성찰하고, 창조적 소통의 기쁨을 누리며,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성장하는 문화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해, 1999년 배우, 마당극 연출가, 교육연극 전문가 등이 모여 창단되었다. 특히, 한국문화의 원형을 바탕으로 그 현재적 의미를 연구하여, 21세기 문화예술교육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신명’으로 어우러지는 다양한 예술교육의 마당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가자격은 무대에서 놀고 싶은 5~7세 어린이들이며 소요시간은 80분이다.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참가비는 1인 당 5,000원이다.

내용은 어느날 숲속에 나타난 자라가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토끼를 찾아 해매이다 숲속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토끼들을 발견하여 용궁으로 떠난다. 큰 배를 타고 도착한 용궁에서 용왕님을 만나게 된다.

아래는 이 연극을 진행하는 방식을 그린 표다. 서로 인사를 나누며 시작을 하고 이야기 내용을 그대로 옮겨 아이들이 모둠별로 연극을 진행하게 된다.

문화사업부
문의 031-481-0524

전체개요

1 로비

- 인사나누기
- 토끼 증표 나누기 (머리띠 등)

2 토끼와 숲속 놀이터에서 놀기

- 아이들이 객석이 앉는다.
- 프로그램 및 역할 안내
- 토끼와 숲속 놀이터에서 놀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대 위)

3 토끼 찾기 및 토끼 데려가기

- 아이들이 토끼라는 걸 알고 아이들을 잡으러 가려는 자라
- 아이들이 무대 곳곳의 나무, 바위 뒤에 숨는다.
- 자라, 토끼들이 꼭 가야하는 이유로 고신다.

4 용궁가는길

- 용궁으로 가는 신비한 길

5 용왕을 만나는 토끼들

- 용왕님이 왜 아프지 묻는 토끼들
- 심심한 용왕님을 즐겁게 해준다
- 용왕님과 기념촬영

6 객석입장

- 객석에 숲속 느낌
- 나무, 새소리

7 토끼가 어떻게 생겼지?_그림자극 활용

- 토끼가 어떻게 생겼지 모르는 자라
- 토끼배우가 토끼의 인상착의를 알려준다고 한다.
- 아이들이 모둠별로 토끼의 생김새, 소리, 움직임 보여 준다.

8 배타고 용궁으로_승하강

- 배타고 용궁으로
- 바다 생물들이 달린 막 내려온다.

9 용궁입구

- 용궁문지기가 각자의 이름을 말해야 용왕님이 듣고 문을 열어준다고 알려준다.
- 마이크 예코처럼

10 다시 숲으로

- 숲으로 돌아가는 아이들(객석)
- 프로그램 마무리



건강한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인문학적 소양 고취

연극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말 그럴까? 연극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막막했다면,
또는 나오는 너무 다른 경지에 있다고 느낀다면 안산문화재단 인문학아카데미의 연극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안산문화재단 인문학아카데미 '연극 맛있게 보기'는 고전을 바탕으로 한 무거운 주제의 연극을 맛있게 보는 법을 알려준다.



A c a d e m y



유재원 강사

나를 성찰하고, 이웃과 행복한 소통을 나누고,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건강한 지역커뮤니티를 상상하는 힘을 기르고자 진행되는 '2013 인문학아카데미'시리즈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됐다.

2013 인문학아카데미의 첫 번째 '연극 맛있게 보기'는 TV 스크린을 넘나들며 성공적인 연기 인생을 펼친 배우 조재현의 강연을 시작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극학과 최준호 교수의 '땀과 쓰고 짜고 단 연극, 맛있게 먹기'가 진행되었다.

오는 5월 1일 인문학아카데미 연극편의 마지막 강연인 유재원 교수의 '기원전 세상에서 보낸 타임캡슐, 그리스 비극'이 예정되어 있다. 국내 그리스 문학의 대표 학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그리스·불가리아학과 유재원 교수는 이번 강연을 통해서 그리스 비극의 숨겨진 이야기와 기원전 당시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를 들려줄 것이다.

안산문화재단의 2013 인문학아카데미는 연극과 연계한 강좌로 관객에게 공연의 재미와 감동을 더 해주고자 기획한 색다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보고 즐기는 공연문화에서 공연예술 콘텐츠를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기획전시와 연계한 인문학 강좌를 계속 마련할 예정이다. 다양한 강좌와 더불어 진행되는 예술콘텐츠를 통하여 관객들이 인문학적 소양과 공연예술의 보는 재미는 동시에 가져갈 수 있도록 다양한 인문학 아카데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3 인문학강좌 - 연극 맛있게 먹기'는 전석 선착순 무료이며 참가신청은 안산문화재단 콜센터 (080-481-400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3 인문학 아카데미3 - 기원전 세상에서 보낸 타임캡슐, 그리스 비극

오늘날 한국인의 정신세계는 조선 시대에 가깝기보다는 근대 유럽에 더 가깝게 되었다. 정치와 스포츠, 문학과 철학, 의학과 자연 과학, 종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의 영향은 우리 생활 곳곳에 배어 있다. 다만 우리 삶 속에 깊이 파고든 그리스적 요소를 미처 깨닫지 못할 뿐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를 제대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비극이란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이다. 수많은 이야기 중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의 비극이 왜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재현되며 우리를 불러들일까? 기원전 세상에서 그리스 비극을 통해 오늘의 우리들과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문화사업부



그림1. 주세페 마리아 크레스피, <큐피드와 프시케>, 1707-9년, 우피치미술관 소장

그림 속 신화 이야기 (8)

사랑의 시작은 믿음입니다

고대 신화에서 큐피드는 사랑의 화살로 인간과 신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장난스러운 인물로 주로 등장한다. 짓궂은 장난을 일삼지만 미워할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 품성을 지닌 탓에 큐피드의 모습은 많은 미술 작품 속에서 날개를 단 아기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특히 어머니인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와 함께 있는 아기천사의 모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쾌락인 아름다움과 사랑을 동시에 보여준다는 점에서 칭송받아 온 회화의 주제였다. 그러나 일부 그림에서는 큐피드가 성장한 청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 바로 프시케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경우이다.

주세페 마리아 크레스피의 <큐피드와 프시케>

어두운 방안에 두 남녀가 마주하고 있다. 은빛 날개를 달고 화살통을 옆구리에 찬 침대 위의 남성이 가까이 다가서는 여인을 손을 내밀며 거부하고 있다. 화면 오른쪽에서 붉은 커튼을 거두며 침대 위로 올라서는 여인은 남성의 얼굴을 자세히 보려는 듯 손에 등잔불을 들고 다가선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의 두려운 몸짓과 어두운 실내를 비추는 희미한 등잔불이 화면 속 상황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그림은 18세기 피렌체의 궁정화가로 활동한 주세페 마리아 크레스피(Giuseppe Maria Crespi)가 그린 <큐피드와 프시케>(그림 1)이다. 크레스피는 강렬한 명암 대비가 보여주는 극적인 분위기 속에 얼굴을 감추려는 큐피드와 호기심을 누르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서는 프시케의 모습을 드라마틱하게 표현해내고 있다.

크레스피의 작품은 사랑의 신 큐피드와 그의 연인 프시케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것이다. 남녀를 사랑의 끈으로 엮어주는 중매자의 역할로 등장하는 큐피드가 스스로 로맨스의 주인공이 된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의 사랑이 항상 행복하고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듯 큐피드의 사랑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니, 그 고난은 의심에서 비롯되었다.

사랑의 신, 로맨스의 주인공이 되다

프시케라는 이름의 여인이 있었다. 어느 왕과 왕후의 셋째 딸로 태어난 프시케는 뛰어난 미모로 국외까지 명성이 자자하여 인접국의 많은 이들이 그녀의 모습을 보기위해 몰려들었고, 그녀를 본 사람들은 경탄하며 지금까지 아프로디테에게 바치던 경의를 그녀에게 바쳤다. 미의 신 아프로디테는 자신보다 더한 아름다움으로 추앙받는 프시케에게 분노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자 사랑의 신인 큐피드에게 프시케가 가장 못생긴 추남과 사랑에 빠지도록 만들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잠이 든 프시케를 찾아가 큐피드는 프시케의 아름다움에 반해 화살로 자신의 손을 찌르고 말았다. 사랑에 빠진 큐피드는 귀여운 아이였던 모습에서 아름다운 청년의 모습으로 변하였다.(그림 2)

아프로디테의 미움을 받은 프시케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지만, 정작 어느 누구에게도 칭혼을 받지 못하였다. 가장 아름답고 귀여운 막내딸이 결혼하지 못하자 왕과 왕비는 아폴론에게 신탁을 청

그림2
푸랑수아 제라르, <큐피드와 프시케>, 1798년, 루브르미술관 소장





그림3
조슈아 레이놀즈 <큐피드와 프시케>
1789년경, 코플드미술관 소장

했고, 프시케가 인간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못생긴 괴물과 결혼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비탄에 빠진 왕과 왕비는 평생을 궁에서 함께 살 것을 제안하지만, 프시케는 자신의 운명에 따르겠다고 혼례준비를 마치고 산꼭대기로 떠났다.

산 위에 홀로 남은 프시케는 서풍 제피로스의 안내에 따라 아름다운 숲과 멋진 궁전에 이르렀고 목소리만 들리는 시중의 안내에 따라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 밤이 되자 다정하게 속삭이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옆에 찾아와 누웠고, 이렇게 기묘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프시케는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그는 밤이 되면 찾아와 날이 밝기 전에 떠났다. 그러나 남편의 음성에는 사랑이 듬뿍 묻어났고, 프시케는 행복하였다. 그녀는 종종 남편에게 얼굴을 보여주기를 청했지만 그는 거절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간의 믿음을 강조하였다.

사랑과 의심은 함께 할 수 없으니

어느 날 자신의 소식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프시케는, 남편에게 부탁하여 두 언니를 궁전으로 초대하였다. 동생의 화려하고 행복

한 생활을 본 언니들은 질투심이 일었고, 아직까지 남편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는 프시케의 말에 의심의 싹을 심어주며 밤에 몰래 남편의 얼굴을 살펴보라고 충고하였다. 아폴론의 신탁에 의하면 프시케의 남편은 매우 무서운 괴물의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남편에 대한 궁금증과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한 프시케는, 그날 밤 남편의 얼굴을 몰래 보기로 결심하고 등잔과 예리한 칼을 준비하여 감춰두었다. 남편이 잠들자 프시케는 등잔불을 들고 남편의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영국의 초상화가 조슈아 레이놀즈(Joshua Reynolds)가 그린 <큐피드와 프시케>(그림 3)는 크레스피의 그림과 마찬가지로 의심을 품고 큐피드의 얼굴로 다가서는 프시케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크레스피의 그림에서 어둠에 얼굴을 묻고 있던 모습과는 달리 레이놀즈의 그림에서는 금빛 고수머리에 보드라운 흰 날개를 가진 큐피드의 모습이 프시케의 눈앞에 잘 나타난다.

남편의 얼굴을 확인한 프시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남편은 바로 신들 중에서도 아름답고 매력적인 큐피드였던 것이다. 놀란 프시케는 실수로 촛농을 큐피드의 팔위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놀



그림4
프랑수아 에두아르 피코
<큐피드와 프시케>, 1817년

라 잠에서 깬 큐피드는 칼을 쥐고 있는 프시케의 모습을 보더니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날개를 펴고 밖으로 날아가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리석은 프시케여, 나는 어머니의 명령도 어기고 너를 아내를 맞이했거늘, 너는 나를 괴물로 의심하고 머리를 배려고 했던 말이나. 가족에게 돌아가라. 너에게 다른 벌을 가하지는 않겠다. 단지 우리는 영원히 이별할 뿐이다. 사랑은 의심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다.” 신고전주의 화풍을 보여주는 프랑스 화가 프랑수아 에두아르 피코(François-Édouard Picot)가 1817년에 완성하여 2년 후인 1819년 살롱전에 선보인 <큐피드와 프시케>(그림 4)는 프시케를 떠나는 큐피드의 생동감 넘치는 모습을 소재로 다루고 있다. 신화의 내용과는 다르게 프시케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잠들어 있어 이 장면이 프시케를 원망하며 떠나는 큐피드를 그린 것인지, 아니면 아침을 맞아 얼굴을 감추기 위해 아내를 떠나는 큐피드를 묘사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피코가 어느 시점에 주목했던지 간에 프시케의 의심에 실망한 큐피드가 그녀를 떠난 것은 사실이다. 큐피드에게 믿음은 사랑만큼 중요했던 모양이다.

사랑은 때로 고난을 필요로 한다

프시케는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며 큐피드를 찾아 나섰다. 그녀는 우선 케레스 여신의 충고를 받아 아프로디테를 찾아가 용서를 빈다. 그러나 아프로디테는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였고, 프시케에게 몇 가지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첫 번째는 비둘기의 모이로 줄 밀, 보리, 완두, 기장들을 같은 종류끼리 가려놓는 일이었다. 어찌할 바를 모르던 프시케를 지켜보던 큐피드는 개미들을 불러 그녀를 도와주었다. 두 번째는 금빛 양털을 구해오는 일이고, 이 역시 인자한 물의 신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프시케에서 노여움을 풀지 못한 아프로디테는 오히려 화를 내며 또 다른 시험을 요구하였다.

아프로디테가 마지막으로 프시케에게 부여한 임무는 지하세계의 여왕 페르세포네를 찾아가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받아오는 일이었다. 인간인 프시케가 저승으로 가는 방법은 죽음뿐이었고, 이에 프시케는 성탑에서 뛰어내리려 시도하였다. 프시케를 가엾게 여긴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는 그녀를 저승으로 연결된 동굴로 이끌며 저승



그림5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
(황금상자를 여는 프시케), 1903년

의 입구인 망각의 강을 건너는 방법과 머리가 셋 달린 개인 케르베로스의 곁을 지나는 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데메테르의 도움으로 무사히 명부에 도착한 프시케는 죽음의 신 하데스의 부인인 페르세포네로부터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전해 받았다. 페르세포네는 프시케에게 절대로 그 상자를 열어보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망각의 강을 건너 지상으로 나온 프시케는 문득 자신의 얼굴이 많이 상한 것을 느끼고는, 남편 에로스가 자신을 보면 실망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도움을 받고자 아름다움이 담긴 상자를 열고 만다. 워터하우스(John William Waterhouse)가 그린 <황금상자를 여는 프시케>(그림 5)는 신들의 비법인 아름다움을 탐하고자 황금상자를 여는 프시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불행하게도 프시케가 연상자 안에는 아름다움 대신 '영원한 잠'이 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마자 프시케는 들뜬에 쓰러져 잠들어 버렸다. 프시케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큐피드는 연인의 고통에 마음 아파하며 제우스를 찾아가 애원하였다. 큐피드의 간청을 받은 제우스는 아프로디테를 설

득하였고 결국 둘의 사랑은 신들의 승낙을 받았다. 잠들어 있던 프시케의 이마에 큐피드가 키스를 하자 프시케가 눈을 떴고, 큐피드는 프시케를 끌어안고 올림포스로 날아올랐다. 고대 로마의 소설가 루키우스 아풀레이우스(Lucius Apuleius)의 문학적 상상력이 더해져 완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큐피드와 프시케의 일화는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난다. 올림포스에 오른 프시케는 제우스가 주는 신들의 음식이자 불로불사의 음식인 암브로시아를 먹고 제우스의 축복을 받으며 큐피드와 함께 천상의 세계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 프랑스 화가 윌리엄 부게로(William Bouguereau)가 그린 <프시케의 납치>(그림 6)는 몽환에 젖은 프시케를 큐피드가 자신의 세계로 데려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제목은 납치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잠에서 깬 프시케를 올림포스로 데려가는 큐피드를 그린 것이니 꽤나 로맨틱한 장면이라 할 수 있겠다. 신화에 등장하는 많은 사랑이야기 가운데 큐피드와 프시케를 많은 화가들이 그림의 소재로 삼은 까닭은 이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여

그림6
윌리엄 부게로,
(프시케의 납치), 1886년



러 우화적 특징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를 믿지 못해 곤경에 빠지는 프시케의 이야기는 사랑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일깨운다. 또한 갖은 고난을 겪은 후에 사랑을 이루는 이야기는, 초라한 모층의 생활을 끝내고 비로소 아름다운 나비가 탄생하는 정화의 과정을 내포하는 듯하다. 고난을 통해 진정한 사랑에 이르는 '프시케의 이름이 그리스어로 영혼 또는 나비를 뜻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진실한 사랑이란, 믿음으로 출발해서 고난을 이겨내는 용기로 도달할 수 있는 종착점이라는 사실을 큐피드와 프시케의 일화는 전하고 있다.

글 강은주

글쓴이 강은주는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석사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미술에 관한 다양한 글쓰기와 전시기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이화여대박물관 학예연구원으로 있다.

명작으로 읽는
세계 연극사 ②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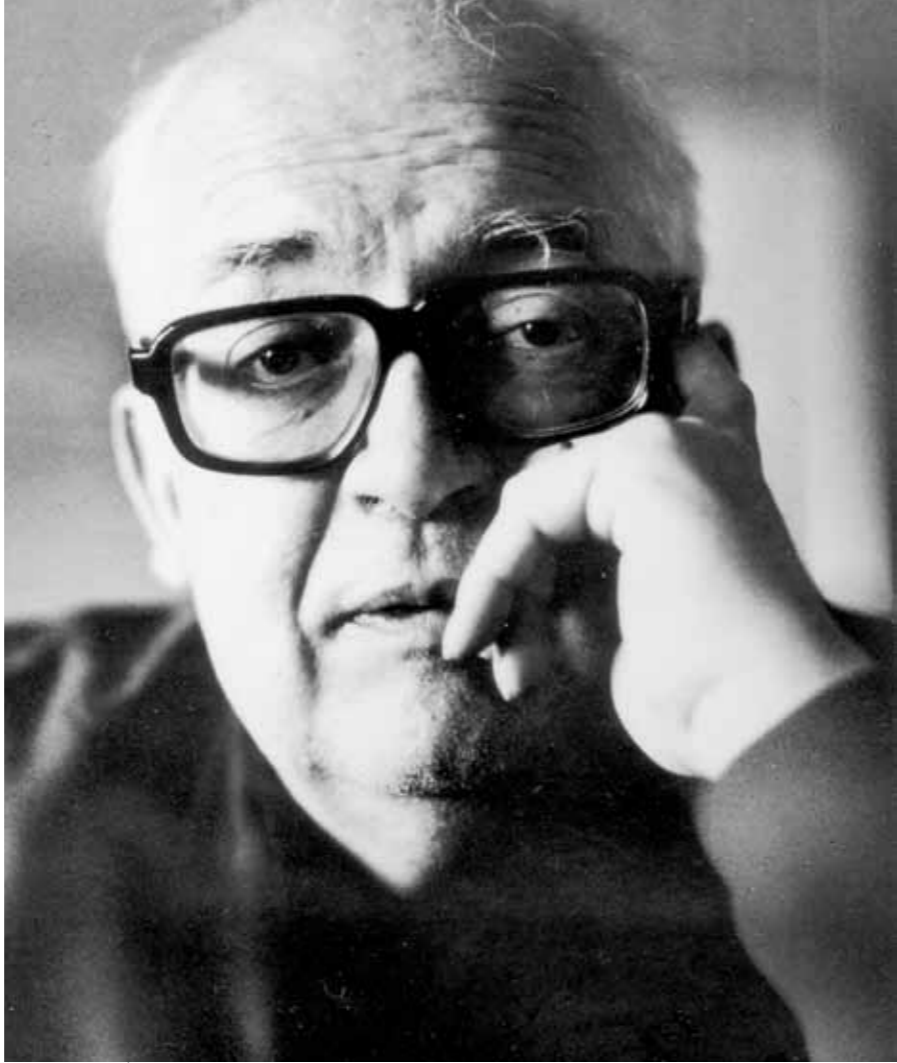
프리드리히 뒤렌마트의 노부인의 방문

Der Besuch der alten Dame

알프스 산맥과 맑은 호숫가 어딜 가나 작은 마을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어 그림엽서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는 곳. 에델바이스가 곱게 피어있는 산기슭에 오르면 어디선가 요들송이 들려올 것 같고 도시에서는 달콤한 초콜릿 향기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곳. 스위스, 스위스는 중부 유럽의 작은 나라지만, 수려한 자연경관과 영구중립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덕분에 오래전부터 아름답고 평화로운 '자상낙원'의 이미지를 이어온 나라다.

세계인의 양심을 깨운 '그녀'의 방문

하지만 스위스를 대표하는 극작가들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떠올리는 이 나라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이미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체로 독일어권 문학계로 분류되는 스위스 극작을 대표하는 작가로는 막스 프리쉬와 프리드리히 뒤렌마트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작품들은 상당히 어둡고 그로테스크하다. 이들은 모두 세계대전의 참상을 겪으며 인간의 윤리와 사회 정의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날카로운 비판의식으로 무장한 작품들을 써 냈다. 프리쉬와 뒤렌마트는 모두 브레히트 이후 최고의 독일어권 극작가로 손꼽히고 있으며, 시대와 시



민을 비판하고 인도적이며 도덕적인 이야기를 괴담과 그로테스크와 같은 부조리한 방식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매우 유사한 작품세계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뒤렌마트는 부조리 연극으로부터 출발해 과장과 풍자, 폭로 등의 방식으로 비뚤어진 사회와 인간을 고발하는 작품들을 주로 썼으며, 그의 작품은 그로테스크하면서도 유머러스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뒤렌마트는 우리를 단죄하려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가만 놓아두지 않는 양심이다"라는 독일의 문학 비평가 마르셀 라이히 라니키의 평은 뒤렌마트의 작품세계를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전후 독일문학의 구원투수

세계대전 이후 피폐해진 독일어권 문학계에 있어 뒤렌마트는 그야말로 구원투수와 같은 존재였다. 전후 막스 프리쉬나 뒤렌마트 같은 뛰어난 극작가들이 스위스에서 많이 나올 수 있었던 데는 영구중립국이라는 스위스의 정치적 조건이 크게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포화와 폭격이 난무하던 세계대전 중에도 영구중립국으로서 전쟁의 피해를 받지 않은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예술 활동이 자유로울 수 있었고, 그만큼 예술가들이 활발한 작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시기 대학을 다니며 젊은 지성을 단련시키고 있던 뒤렌마트는 문단에 혜성처럼 등단해 정제되어 있던 전후 독일어권 문학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개신교 목사였던 아버지를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뒤렌마트는 냉소적



그림
국내공연포스터 ©두산아트센터

인 무신론자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았고, 대학에서는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읽으면서 무신론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였다. 이러한 그의 기질은 언론인이자 정치가였던 할아버지 울리히 뒤렌마트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철저한 무신론과 냉철한 이성으로 무장한 뒤렌마트의 특징은 그의 작품에서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어냈다. 삶과 죽음, 신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갈등에 대해 언제나 한 발짝 떨어진 채 냉정한 시선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뒤렌마트 특유의 풍자와 기지, 진지함과 허무한 웃음이 공존하는 위트가 생겨난다.

뒤렌마트의 대표작으로는 <로물루스 대제>(1952) <미시시피 씨의 결혼>(1952) <천사 바빌론에 오다>(1953) <노부인의 방문 Der Besuch der alten Dame>(1956) 등이 있다. 1950~60년대에 왕성한 집필활동을 펼친 뒤렌마트는 이 시기 이후에는 주목할 만한 희곡을 발표하지 못했으나 사회활동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1968년 소련이 체코를 침공했을 때는 막스 프리쉬, 귄터 그라스 등 동료작가들과 함께 강력한 항의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천역보다 저렴한 우리의 정의

뒤렌마트를 세계적 지성으로 부각시켜준 <노부인의 방문>은 돈으로 정의를 구매한다는 황당한 설정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노부인의 방문>은 어느 몰락한 작은 도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기차역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이 도시 출신으로 갑부가 되어 금의환향하는 차



그림2
국내공연포스터2 ©극단 김문지

하나시안 부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극도의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던 시민들은 그녀가 자신들을 구원해줄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고, 그녀를 환영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준비하는 데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런 그들 앞에 예고도 없이 나타난 노부인 차하나시안은 환영 행사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곧장 자신의 용건부터 이야기한다. 그녀는 시민들 앞에서 이 도시에 천역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하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을 내건다. 젊었을 때 자신을 배신하고 사생아를 낳게 한 뒤 거짓증인으로 마을에서 쫓겨나게 만들었던 옛 애인 알프레드를 죽여 그 시체를 내놓으라는 조건이다. 누가 죽여도, 언제 죽여도 상관없다. 다만 그가 죽을 때까지 자신은 이 마을에 계속 머무를 것이며 그가 죽는 순간 수표를 써 주겠다는 노부인의 말에 시민들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처음 이 섬뜩한 제안에 놀란 시민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그녀의 제안을 거절하지만, 결국 풍요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알프레드를 살해하는 데 집단적으로 가담하게 된다.

천역과 옛 애인의 시체를 맞바꾸자고 하는 노부인의 제안은 그로테스크하기 그지없지만, 이 작품에서 그보다 더 그로테스크한 것은 이 제안을 받고 점차 변해가는 시민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노부인의 제안을 거절하며 동료인 알프레드를 지키겠다고 당당히 선언하지만, 어느새 알프레드가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는지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가 스스로 죽여주기를 은근히 바란다.

그런가 하면 '약속된' 천역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 시민들은 생필품과

사치품 등을 끊임없이 사들이는데, 이러한 이웃들의 달라진 삶은 그 자체로 알프레드를 죽음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와 아들, 딸마저 자신을 담보로 한 이 흥정의 결과를 기대하며 사치품을 사들이는 모습을 보며 알프레드는 스스로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마을 사람들의 손에 자신의 목숨을 맡긴다. 마을 시민 모두가 모인 회의장. 어둠 속에서 알프레드는 누군가의 손에 목이 졸려 죽지만, 결국 그를 죽인 것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이웃인 마을 사람 모두인 것이다.

‘표범’과 후불식 소비 패턴

한편 <노부인의 방문>은 주제를 표현하는 방식과 이를 보여주는 과정에 있어 흥미로운 점이 두 가지 있다. 먼저 극중 ‘표범’이란 상징이 지니는 중의적인 의미다. 작품 속에서 노부인은 검은 표범을 애완동물처럼 지니고 다니는데, 알프레드와의 대화 속에서 이들이 연인이었을 당시 ‘표범’은 차하나시안 부인이 알프레드를 부르는 애칭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극중 노부인의 제안이 본격적으로 받아들여질 무렵, “표범이 도망쳤대!”고 외치며 사람들이 이를 잡으러 나서는 장면은 세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첫째는 실제로 차하나시안 부인의 우리로부터 도망친 표범을 잡으러 가는 것이고, 이는 곧 젊은 시절 차하나시안 부인이 ‘표범’이란 애칭으로 불렀던 알프레드를 쫓는 죽음의 사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그들 마음속, ‘검은 표범’과 같은 검은 욕망이 드디어 윤리와 도덕의 울타리를 뚫고 밖으로



그림4
차하나시안 ©Carmen Renate Köper



그림4
일러스트 ©2013 Ferry Atré



해외공연 Mainfranken Theater Würzburg ©Bild Gabriela Knoch



해외공연2 Bildstrecke Theater Legende Maria Becker ©Keystone / STR

뛰어나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표범이라는 상징을 통해 이렇게 풍부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작가 뤼렌마트의 재능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마을 사람들이 알프레드를 서서히 죽음으로 몰아가는 과정이 고도로 발달한 자본주의 경제의 '후불식' 소비패턴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아직 노부인으로부터 약속한 전액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프레드의 잡화점에 찾아와 이런저런 물건들을 끊임없이 사 들인다. 그리고 대체 어떻게 값을 지불할 것이냐는 알프레드의 절규에 그냥 "달아놓으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달아놓은 금액이 점점 커져갈수록 그 빚을 갚기 위해서라도 그들에게는 알프레드의 죽음에 더욱 절실하게 되고, 결국 이들의 소비 욕망은 알프레드를 죽음으로 내모는 주된 동력이 된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모습은 신용카드로 일단 소비 욕망을 채운 뒤 그 돈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 인간의 소비 욕망으로 굴러가는 자본주의의 본질과 그 폐해를 일찌감치 꿰뚫어본 작가의 날카로운 안목이 돋보이는 설정이다.

‘노부인’은 언제든 올 수 있다

결국 모두가 지켜보는 속에서 알프레드가 죽음으로써 종결되는 이 드라마는 인류의 지고한 가치인 '정의'라는 것이 돈에 팔려갈 수 있다는 암울한 결론을 그로테스크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무엇보다 섬뜩한 것은 처음에는 동지의 눈빛으로, 그러나 점차 자신들의 지켜온 가난을 종식시켜 줄 사냥감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림: 영화포스터

알프레드를 바라보게 되는 마을 사람들의 태도 변화다. 누구보다 큰 소리로 알프레드를 지켜주리라 다짐했던 교장마저 결국 나중에는 술에 취해 알프레드에게 본심을 고백하고 만다. “인간성에 대한 믿음은 힘이 없어요. 그걸 알기에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었소. 나는 두렵소. 우리에게도 한 번은 저런 노부인이 오게 되겠지요. 언젠가는 말이오. 그러면 지금 당신이 겪는 일을 우리도 당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아직은 알고 있어요.” 교장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뤼렌마트의 ‘노부인’은 단순히 이 작품 속 차차나시안 부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정의와 양심을 시험하는 유혹과 욕망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그러한 ‘노부인’의 방문에 흔들리지 않을 거라 장담할 수 없기에, 뤼렌마트의 경고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글 김주연
고려대학교 노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러시아 연극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까지 월간 『객석』에서 연극 담당 기자로 활동하면서 『우리 시대의 극작가』(공저)를 출간했다. 현재 연극학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연극 칼럼니스트와 드라마터그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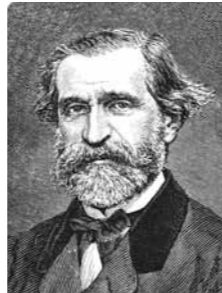
베르디 & 바그너 탄생 200주년 특집 ②

최고 인기 오페라의 탄생

베르디와 바그너, 1813년에 태어난 동갑내기 작곡가 중에서 자신의 뚜렷한 개성을 먼저 드러낸 쪽은 바그너였다. 30살에 드레스덴의 작센 궁전극장의 카펠마이스터라는 중책을 꿰찼고, 그가 궁극적 과제로 생각한 무지크드라마, 즉 '음악극'의 원형에 상당한 접근을 보이고 있는 <로엔그린>을 이미 35세에 완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그너가 정치적 문제로 딜레마에 빠진 사이 베르디가 먼저 치고 나갔다.



Richard Wagner



Giuseppe Verdi



베르디의 오페라 26편을 시기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학자에 따라 의견이 다르지만 나름대로 객관화해 본 것이다.

베르디 최고의 인기 작품들 :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

- 초기 : <오베르토>(1839), <하루만의 임금님>(1840), <나부코>(1842), <제차 십자군의 롬바르디아인>(1843), <에르나니>(1844), <포스카리가의 두 사람>(1844), <조반나 다르코>(1845), <알차라>(1845), <아틸라>(1846), <맥베스>(1847), <군도>(1847), <해적>(1848), <레나노의 전투>(1849)
- 초기에서 중기 이행기 : <루이자 밀러>(1849), <스티펠리오>(1850), <리골레토>(1851), <일 트로바토레>(1853), <라 트라비아타>(1853)
- 중기 :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1855), <시몬 보카네그라>(1857), <가면 무도회>(1859), <운명의 힘>(1862), <돈 카를로>(1867)
- 후기 : <아이디>(1871), <오텔로>(1887), <필스타프>(1889)

이번 호에 소개할 '초기에서 중기 이행기'의 작품들은 벨칸토 오페라를 직접적으로 계승한 초기의 작품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원숙한 단계로 접어들어 베르디 고유의 색깔을 입히기 시작한 단계다. 가장 유명한 3대 인기작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우리는 그 이전에 <루이자 밀러>와 <스티펠리오>라는 다소 덜 알려진 두 작품을 만나게 된다. 실러의 원작을 다룬 <루이자 밀러>는 부녀간의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리골레토>의 예고편 같은 인상을 주는 이 오페라는 초기에 역사적 소재에 천착했던 베르디가 멜로드라마에서도 귀재임을 입증한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스티펠리오>는 좀 희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목사부인의 간통과 이를 용서하는 남편의 이야기인 것이다. 아무리 이탈리아가 가톨릭 국가라지만 불편한 설정이어서 훗날 베르디는 등장인물을 완전히 바꾸어 <아롤도>란 오페라로 개작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냥 <스티펠리오>로 공연되는 경우가 많다. 중후한 분위기의 작품성은 무척 뛰어나다.

베르디의 모든 오페라 중에서 가장 널리 사랑을 받는 3대 인기작은 연이어 작곡된 <리골레토>(1851), <일 트로바토레>(1853), <라 트라비아타>(1853)다. 이때 베르디의 명성은 이미 전 유럽에서 확고부동한 것이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유복해져서 고향 부세토 근처의 산타가타에 큰 농장을 마련하고 평생의 거처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리골레토>는 만토바 공작의 채홍사로서 악행을 일삼던 꼬추 리골레토가 결국 그 딸마저 공작에게 농락당하자 복수를 꾀하다가 오히려 딸을 잃는 얘기다. 여기에는 첫 결혼에서 얻은 두 자녀를 모두 유년기에 잃고 아내와도 사별한 베르디의 아픈 가족사가 반영되어 있다. 초기작 <나부코>, <포스카리가의 두 사람> 그리고 <루이자 밀러>를 거치면서 부녀, 혹은 부자지간의 상처와 사랑을 묘사한 감동의 경지는 절정에 이르렀고, 아버지 역의 타이틀 롤로 바리톤을 내세운 것 또한 찬사를 받게 되었다. <일 트로바토레>는 15세기 스페인의 아라곤을 배경으로 하는데, 주인공 만리코는 자신을 집시의 아들

이라 알고 있지만 사실은 백작가문의 둘째 아들이다. 그래서 실종된 동생을 찾아다니는 루나 백작과는 전장에서의 라이벌이자 한 여인을 사이에 둔 연적 관계가 된다. 음악적으로는 굉장히 전통적인데, 벨칸토 오페라 스타일의 작열하는 박력은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다. <라 트라비아타>의 작곡 동기는 소프라노 가수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와 관계된다. 첫 아내와 사별한 후에도 장인에 대한 송구함 때문에 재혼을 미루던 베르디는 스트레포니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극히 만류했다.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던 스트레포니는 부모를 부양하기 위해 유명 바리톤 가수, 그 다음에는 라스칼라 극장장의 정부(情婦) 노릇을 했고, 그런 가운데 사생아를 셋이나 낳았기 때문이다. 반대에 직면하자 스트레포니는 은퇴하고 파리로 가버렸는데, 베르디가 쫓아가 파리 사교계를 주름 잡았던 마리 뒤플레시스를 모델로 한 연극 <카멜리아의 여인>을 함께 보고 오페라로 작곡할 것을 결심한다. 육체가 타락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지만 영혼은 누구보다도 아름답다는 점에서 연극의 주인공 마르그리트 고티에와 자기가 사랑하는 주세피나가 닮았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마르그리트라는 주인공 이름이 사별한 첫 아내 마르케리타의 프랑시스 표기였기 때문에 오페라에서는 주인공 이름을 비올레타로 바꾸게 된다. 그러나 베르디는 오페라를 작곡하면서 주세피나 뿐 아니라 마르케리타도 떠올렸음이 틀림없다. 오페라에서 패물을 팔아 생활비를 대는 비올레타의 모습은 어렵던 시절에 마르케리타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두 여인에 대한 사랑에 사로잡혀 작곡했을 것이니 어찌 명작이 탄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결국 베르디는 주세피나 스트레포니와 재혼할 수 있었다.

대중적인 열광에도 불구하고 3대 인기작에 대한 학자들의 시각은 그만큼 호의적이지 않다. 과거로 회귀했다는 점이 그 중요한 이유다. <리골레토>의 경우 카바티나-키발레타의 전통을 해체하는 징후를 보이지만 <루이자 밀러>의 피날레에서 가능성을 보인 번호 오페라의 극복은 오히려 수그러들었고, <일 트로바토레>에서는 다시금 카바티나-키발레타의 강력한 드라이브 극을 끌고 나가는 상황이 재연되었다. <라 트라비아타>도 사교계 여인을 주인공으로 삼은 설정 때문에 비판에 직면했다. 그럼에도 세 작품의 인기는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 <리골레토>는 가장 비극적인 줄거리에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극적인 진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벨칸토식 개념이 완성을 보았다는 것으로, <일 트로바토레>는 근육질 넘치는 박력이 극한까지 구현된 최고의 규범으로서, <라 트라비아타>는 아무리 반복해 들어도 눈물이 쏟아지는 비올레타의 비극적 운명 때문에 관객을 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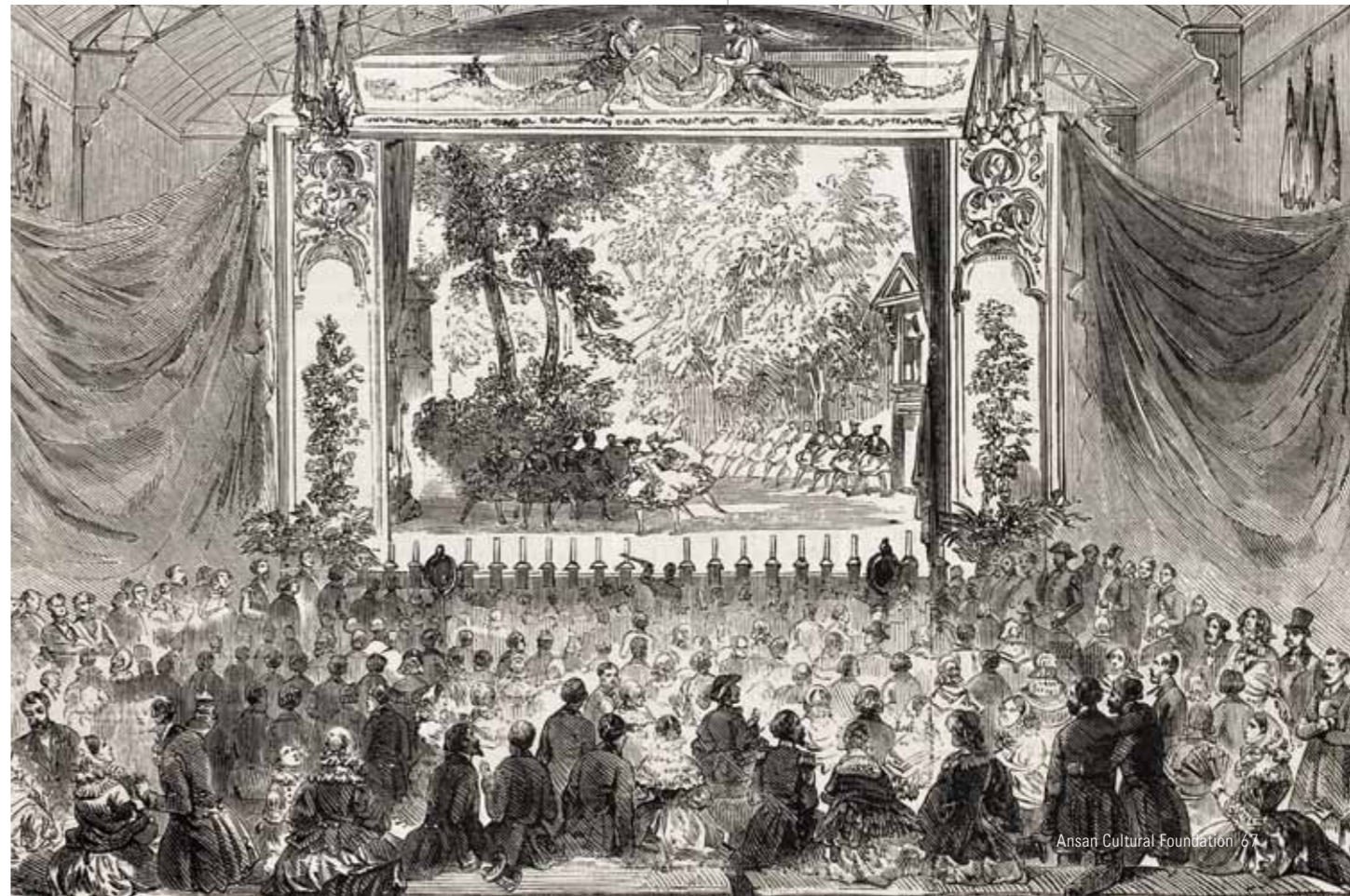
어당긴다. 과연 베르디는 드라마틱한 흡인력의 천재라고 하겠는데, 그것은 음악만이 아니라 대본 작업에서 자기 의견을 까다롭게 관철시킨 문학적 소양에도 힘입은 바 크다.

바그너의 회심의 역작: <트리스탄과 이졸데>

바그너는 1849년에 일어난 드레스덴 봉기에 참여한 바람에 수배령을 받고 드레스덴을 도망쳐 나왔다. 궁정극장의 카펠마이스터 직책도 상실했음은 물론이다. 이때부터 십 수 년에 걸친 기나긴 망명 생활이 시작된다. 드레스덴 시절에 작곡한 <로엔그린>은 1850년 바이마르에 자리를 잡고 있던 프란츠 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구차스럽

게 초연했고, 아내 민나에 대한 사랑은 완전히 식어버렸다. 본격적인 외도에 접어든 것도 이 망명 시기였다.

바그너는 키가 작고 머리가 지나치게 컸으며, 미남도 아니었지만 여인들을 휘어잡는 힘이 있었다. 문제는 모든 것을 자기합리화하는 것에 능숙한 바그너답게 도덕적인 규율에 대해서는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점이였다. 그래서 곤경에 빠진 바그너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악보의 판권을 구입해주는 등 바그너의 재기를 헌신적으로 도운 부유한 상인 오토 베젠동크의 아내 마틸데와 불륜에 빠져버렸다. 자신의 모든 오페라의 대본을 직접 쓸 정도로 문학적인 부분에 엄격했던 바그너가 아마추어 이류시인에 불과한 마틸데의 시를 받아





〈베젠동크 가곡집〉을 작곡한 것만 보더라도 그 열병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비밀스런 사랑은 4년 만에 바그너의 아내 민나에게 발각되었는데, 바그너 측이 오히려 먼저 민나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된다. 그러나 민나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아마도 남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괴롭히고 복수하고픈 심정이 되었기 때문이었으리라.

마틸데 베젠동크와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대신 중요한 결과물이 남았으니, 그것이 바그너의 가장 인기 있는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1859)다. 주인공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각각 콘월(영국 남서부)의 기사와 아일랜드의 공주인데, 이졸데는 트리스탄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삼촌이자 콘월의 왕인 마르케의 왕비가 된다. 이것만으로도 등장인물의 구도가 명확해졌다. 트리스탄은 바그너요, 이졸데는 마틸데이며, 마르케 왕은 오토 베젠동크인 것이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사랑의 묘약을 핑계로 금단의 사랑에 빠져들고, 낮에

이룰 수 없는 사랑을 밤의 정염으로, 급기야 죽음을 통해 사랑의 결합을 완성할 것을 갈구하게 된다. 오페라 3막에서 마르케 왕이 두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오토 베젠동크를 향해 아내를 놓아달라는 바그너의 요구나 다름없다. 또 트리스탄이 죽자 아무런 약이나 도구의 도움 없이 죽음을 맞는 이졸데의 모습은 세속적인 죽음이 아니라 초월적인 세상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트리스탄과 이졸데〉는 게르만의 분파인 켈트 족의 중세 설화에서 가져온 이야기이지만 마치 세기말의 미학을 보는 것만 같다. 두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절절한지 2막의 사랑의 이중창은 40여분에 달하고, 그 가사와 음악을 살펴보면 대단히 에로틱하고 퇴폐적이기까지 하다. 베르디가 〈라 트라비아타〉에 쏟아 부었던 영혼의 불꽃을 바그너는 〈트리스탄과 이졸데〉에 더욱 자극적인 방식으로 퍼부은 셈이다. 바그너 개인의 음악적 발전단계로 보면 〈로엔그린〉에서 단초를 보인 무지크드라마의 개념은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성숙해져서 완성 직

전단계에 도달했다. 바그너에게 있어 음악극의 목표는 드라마와 음악의 균형이며, 지향점은 오히려 드라마에 있는 것인데, 그 수단으로서 한 막이 끝날 때까지 음악(특히 관현악)을 단절 없이 지속되도록 하는 무한선율의 개념이 확고해졌고, 중요한 몇 개의 캐릭터나 상황을 나타내는 특정음형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유도동기(라이트모티프)도 체계적으로 구사되고 있다. 또한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의 구분이 사라진 것은 바그너가 일찌감치 의도한 것이었다.

이런 결작을 완성하고도 바그너는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공연하지 못했다. 아직도 방랑자 신세였기 때문이다. 1860년대에 접어들어서야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시기는 베르디에게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결작이 탄생하는 때이기도 했다.

글 유형종

연세대학교와 서울대 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관광기관에 근무하면서 1996년부터 음악과 무용에 관한 기사를 썼고 현재는 무지크비움 대표로 있으면서 강의를 하고 글을 쓴다.



대학로 인도얌이 열풍의 주인공!
퇴사조장 연극!



인도로 떠난 네 형준의
본격로드씨어터

인디아블로그

India Blog

시즌2-

인도, 사랑을 노래하다

"스트레스 확~풀릴 웃음 폭탄 투하!"
"공연 본 뒤 사표내고 여행 떠나게 하는 연극!!"

2013.6.13(목)-16(일)

목,금 8PM / 토 3,7PM / 일 2,6PM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별무리극장

제작 | 극단연우무대 연출 | 박선희 출연 | 김다흰 / 임승범

전석 20,000원(중학생이상관람가) | 조기에매 20%할인(~4.19까지 예매시)

콜센터 080-481-4000 / 인터파크 1544-1555

03



- 72 문화탐방 - 감골시민회 마을공동체 문화사업
- 76 단원미술관 개관 이모저모
- 78 단원미술관 대관 일정 및 안내
- 80 문화 나누미 안내
- 82 리뷰



Main Theme
ASAC News



감골주민회

행복을 품앗이하는 마을공동체

일본 오사카 인근 키타시바 마을엔 조금 특별한 식당이 하나 있다. 월요일엔 양식집, 화요일엔 빵집, 수요일엔 건강식 레스토랑 등 매일매일 메뉴가 바뀌는 화려한 식당이다. 번덕스런 성미를 가진 주인장이 있는 것일까? 아니다. 그곳엔 주인과 주방장이 따로 없다. 마을 공동 주민 모두가 주인이자 요리사인 마을 가게인 셈이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키타시바 마을처럼 주민들이 직접 마을을 운영하고 공공의 사업을 진행하는 이른바 마을공동체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 불균형 문제, 소외계층 문제, 고령화 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각광 받고 있는 마을공동체. 서울의 성미산 마을, 삼각산 마을, 부산의 반송마을 등이 그 대표적 예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도 '감골주민회'라는 이름의 마을공동체가 탄생했다. '감골'이라는 마을 이름처럼 정감어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마을공동체의 임원 여러분과 짧은 이야기를 나눠봤다.

미당을 나온 임탁

임탁이 올면 집안이 망한다고 누가 그랬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은 아줌마들로부터 나온다고도 하지 않았던가. 감골주민회의 시작은 속칭 아줌마 파워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2010년 석호초등학교 도서관의 도움으로 어머니회 봉사활동을 통해 평생학습을 실천했던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졸업과 함께 학교에서 했던 다양한 실천들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공동체를 형성했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거나 책 축제 등을 운영하다가 문득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학교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엄마들끼리 모임을 만들어 2011년 기초학습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학습 멘토링을 시작한 것이 출발점이 되었죠.”

물론 처음엔 마을공동체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던 게 사실이다. 이웃들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고, 새로운 시도에 대한 두려움도 내비쳤다. 비록 시작은 미약했으나 그 끝은 창대했으니, 10명도 채 되지 않는 회원으로 시작된 주민회는 3년 만에 정회원 30명, 동아리 회원 100여명이 넘는 탄탄한 조직으로 성장을 일궈냈다.

평범한 다기구 밀집 지역이었던 사동 인근에 최근 관공서 단지가 들어서고, 수인선 개통을 앞두고 있어 예전보다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다고 한다. 산으로 둘러싸인 공기 좋은 환경과 다른 지역에 비해 유흥, 유흥업소가 드문 점도 마을의 장점이다. 최근 이주해 오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오래도록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마을에 필요한 요소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에 감골주민회는 보다 더 살기 좋은 마을,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꿈꾸는 마을 놀이터

전국 1162만 가구 중 맞벌이 가정이 500만 가구가 넘는 요즘. 나의 이웃에 누가 살고,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르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느껴진다. 먹고 사느라, 아이를 키우느라 외면했던 이웃들과의 소통. 감골주민회는 소통을 목적으로 출발했다. 마을마다 있는 놀이터가 그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 회원들은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행사를 구성했다. 감골 다기구 밀집 지역에 존재하는 4개의 놀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해 지난 해 특색있는 축제를 만들어냈다.

“놀이터가 오전엔 비어있고, 오후엔 초등학생들이 조금 찾다가 저녁엔 탈선 청소년들이 담배나 피우는 이미



제1회 감골 주민자치학교



지가 바빠있어요. 생각해보면 놀이터는 주민들이 오고가는 골목에 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공간을 방치하기보다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공간으로 바꾸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탄생한 놀이터 축제. 지난 해 총 세 차례 진행되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봄에는 공연과 체험, 전시를 위주로 한 어린이날 축제, 여름에는 영화제, 가을에는 음악회를 선보였다. 올 여름에는 그 영역을 넓혀 마을 뒷산에서 영화제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축제의 성패, 가부여부를 떠나 한여름 모기퇴치를 고민하는 회원들의 눈빛에서 소소한 행복의 기운이 느껴졌다.

“학교나 다른 기관에서 개최하는 행사에 많이 참여를 해봤는데 뭐랄까, 양에 차지 않더라고요. 대부분 비슷 비슷한 것들 뿐이어서요. 이웃들이 각자 지닌 사소한 재능들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하는 겁니다. 우린 높은 수준의 공연이나 체험프로그램을 요구하지 않아요. 함께 만들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스스로 준비하고 만들어가는 거죠.”

마을이 곧 학교다

감골주민회는 놀이터를 중심으로 한 행사 외에도 다양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책모임이나 공예 수업이 이뤄지는 성인동아리, 마을의 숲과 역사를 공부하는 어린이동아리와 1318 청소년동아리까지 총 7개의 동아리가 활발히 활동 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일꾼을 발굴하는 주민자치학교는 지난해 개설되어 올해는 더욱 발전적인 그림을 그려가고 있다. 주민들 스스로 재능을 기부하고,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된 까닭이다. 이런 주민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엔 어떤 노하우가 숨겨져 있을까?

“따로 홍보를 위해 수고를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수다의 힘이 중요하죠. 마을 곳곳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 주민회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자연스런 홍보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동아리 회원이 있으면 그들의 가족, 옆 집, 마을 슈퍼, 세탁소 등 곳곳으로 연결이 되는 방식이죠. 입소문이란걸요. 그렇게 공동체식이 일상화되는 것이 노하우라고 할 수 있겠죠.”



올해 감골주민회는 보다 색깔 있는 사업을 구상 중에 있다고 한다. 바로 마을카페와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마을카페는 단순히 차를 마시는 공간이 아닌 마을 구성원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실천적이고 생산적인 거점으로 탄생할 예정이다. 안산문화재단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우리 동네 예술 프로젝트는 신나는 문화회와 자바르페와 함께 주민들이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창작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장차 자립성 있는 당당한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꿈들이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중이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되는 마을

“마을공동체가 자리를 잡으려면 우선 이 마을에 내가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아파트를 선호하고, 서울이나 신도시로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만 살아가면 공동체는 존재하기 힘들어집니다. 관계의 힘이 중요해요. 사람이 좋아지면 마을이 좋아집니다. 어른들이 정착하면 자연스레 그 마을은 아이들의 고향이 되고요. 부모가 떠나면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아이들에게 고향이 되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입니다.”

지난 2월, 주민회가 주축이 되어 반찬모임이 생겨났다고 한다. 별고 먹고 입는 문제 중 가장 중요한 ‘먹는 일’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자는 목적으로 시작된 모임이다. 덕분에 전업주부들은 끼니의 걱정에서 조금은 벗어나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맞벌이 부부나 독거노인, 소외계층에게 나눔의 온정까지 베풀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인터뷰 내내 주민회 임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마을의 발전, 주민의 편의, 주민회의 성장에 대해 역설했다.

내가 살아 온, 내가 살아가야 할 마을. 적금을 붓고, 연금을 내고, 실버보험을 들어두는 것만이 훌륭한 노후 대책일까? 어찌 보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노후대책이 아닐까? 결국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활동, 이 모든 단어의 핵심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지 않나 싶다. 마지막으로 감골주민회가 이웃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없냐고 물었다.

“없다. 기대를 하게 되면 실망을 하기 마련이다. 이웃 모두의 사정을 이해하고, 차분히 지켜보고 기다릴 예정이다.”

우문에 현답이다. 주민회 임원이라 할지언정 그들 자체가 마을 주민이었기에 나올 수 있는 대답이었다. 모쪼록 감골주민회와 그 이웃들의 행복품앗이가 더욱 더 끈끈해지길 소원해본다.



취재 임현석
사진 감골주민회 제공



안산문화재단 출범 및
단원미술관 개관식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 및 시민 행복 위해 노력



지역미술문화 발전을 알리는 힘찬 소리가 들린다. 안산문화재단 출범과 함께 단원미술관 개관식이 열렸다. 문화·예술을 만방에 꽃피울 박중한 사무를 띠고 안산의 문화 원동력으로 거듭나길 빌어본다.

새롭게 문을 연 단원미술관은 연중 규모있는 미술 전시를 기획하고 대관전을 열어 보다 다양한 관객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미술관과 함께 공식적인 출범을 시작한 안산문화재단은 문화·예술 발전 동력으로 보태지게 될 것이다.

각계 각층의 문화·예술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혼 혼한 자리가 된 개관식의 이모저모를 알아본다.

안산문화재단의 공식 출범과 함께 개관

새롭게 닦을 올린 안산문화재단(舊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대표이사 김인숙)의 공식적인 출범식과 단원미술관 개관식이 5일 꽃 피는 새봄처럼 기대와 관심 속에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민 시장(안산문화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인숙 대표이사, 안산시의회 전준호 의장 등 내·외빈과 시민 500여 명의 참석, 재단의 출범과 미술관 개관을 축하했다. 본 행사에 앞서서는 사물놀이팀(터주)의 '길놀이', 시립 국악단·합창단의 식전공연이 펼쳐졌으며, 미술관 건립에 많은 힘을 쏟은 유공자 표창이 진행, 이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김철민 시장의 인사말로 시작된 개관식

김철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안산문화재단의 공식적인 출범과 단원미술관 개관으로 우리 시민들은 더욱 다양한, 그리고 쉽고 편하게 문화예술을 만날 기회를 갖게 됐다”며 “모든 시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로 행복해지고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범식 및 개관식에서는 또한 안산문화재단이 출범하기까지 지난 10년 동안의 재단의 역사와 기록물들을 담은 타임캡슐 봉인식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타임캡슐에는 재단 연혁(화보집), 재단 홍보 동영상, 재단 제작 공연 포스터 등이 담겨, 보존된다.

이후 내·외빈들은 단원미술관 전시관 등을 둘러봤으며, 미술관 개관에 맞춰 열린 기획전시인 'ArtNow2013' 작품작들을 관람했다.

한편 안산문화재단은 우리 시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 새롭게 출범, 문화와 예술을 통해 보다 행복한 도시, 안산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게 된다.

취재 김선량
사진 안산시청 제공

대관신청안내

▶ 대관문의/신청

■ 공연등 및 기타시설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재)안산문화재단 공연기획부 대관담당자 앞
 TEL 031-481-4025 FAX 031-481-4021

■ 전시등 내 기타시설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재)안산문화재단 교육전시부 대관담당자 앞
 TEL 031-481-0525 FAX 031-481-4094

■ 공연장

시설명	해돋이극장	달맞이극장	별무리극장	야외공연장
규모	1,368석(아동극1,060석)	686석	142석(가변석)	1,000명 수용

■ 전시관

시설명	제1전시실	제2전시실	제3전시실	제4전시실
규모	368,13㎡	361,85㎡	361,78㎡	360㎡

2013 단원미술관 전시일정

구분	제1관 1 전시실			제1관 2 전시실			제2관		
	전시명	전시기간	주최	전시명	전시기간	주최	전시명	전시기간	주최
5월	단원미술관 개관 기념전 4.5.~5.5. 전관								
	단원미술관 개관 기념 학생미술 실기대회 수상작전 5.10.~5.15. 안산문화재단						정운기 개인전	5.10.~5.15.	정운기(문인화)
	경기미술모두전	5.17.~5.22.	경기 미술모두회	예소담전	5.17.~5.22.	예소담회	안산사생회원전	5.17.~5.22.	안산사생회
	대한민국 한글서예대전 5.24.~5.29. 월간서예								
환경미술협회전 5.31.~6.5. 안산 환경미술협회							연미회 5인전	5.31.~6.5.	연미회
6월	단원미술제								
	아트 & 월드 기획전 6.14.~6.19. 아트 & 월드						단원작가회전	6.14.~6.19.	단원작가회
	한국자연미술협회전 6.21.~6.26. 한국자연미술협회						土水火 도예전	6.21.~6.26.	土水火회
	미담전	6.28.~7.3.	미담회	김영구 개인전	6.28.~7.3.	김영구	아르보회원전	6.28.~7.3.	아르보회

꿈과 감성을 통한 삶이 즐거운 문화 공간 만들기+

안산문화재단은 21세기 문화와 예술이 지닌 가치를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문화의 세기라는 말이 시사하듯,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문화예술은 국가는 물론
지역 자치단체의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꿈에 한발짝 다가가기 위해 공연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혼자 꾸는 꿈이 아닌 함께 하는 꿈으로 관객들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꿈과 감성을 바탕으로 행복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문화 공간 안산문화재단예술의전당에서
향기로운 문화를 가꿔 가는 일에 함께 해보지 않으시겠어요?

회원가입 안내

참여 방법

문의 031-481-4046(문화나누미 담당자)
전당홈페이지 www.ansanart.com

회원 구분 및 예우

■ 참여방법

문의 : 031-481-4046(문화나누미 담당자)

전당홈페이지 : www.ansanart.com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161-01-086553

(재)안산문화재단 문화나누미

■ 회원구분 및 예우

구분	기부금액	회원예우
나눔회원 (개인)	1만원 이상	1. 기부금영수증발급 2. 무료공연 우선초청 3. 기획공연 프로그램복증정
보람회원 (개인/단체)	10만원 이상	4. 전당소식지 하늬다리 우송
행복회원 (개인/단체)	100만원 이상	5. 전당기념품 증정(보람, 행복회원)

- 회원자격은 1년간 유지됩니다.
- 기부하고자 하는 대상을 직접 지정해 주셔도 됩니다.
- 예) 직장동료, 모교후배 등

납부계좌

농협중앙회 161-01-086553 (재) 안산문화재단 문화나누미

Thanks to Sponsorship

아름다운 만남 '나누미'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4월 현재

총 178,083,600원이 모금되었습니다.

※ 후원금 전액은 문화소외계층 공연관람을 위해 사용됩니다.



행복회원

안산시청 복지정책과, 헤보레 안산남부영업소, 신한은행농구단, 안산1대학, 농협중앙회 안산시지부, 기업은행 안산점
김동호, (주)정든, (주)우리미래, 안산중앙신협, (주)코레코, 윤영중, BM산부인과, 드림웍스, 삼우도시시설관리(주)

나눔회원

박수연, 바리스커피, 헬로우오복성, 김용민, 김윤성, 이명식, 허연숙, 황정임, 하양숙, 김영균, 박수현, 버들공방, 이유석

보람회원

김원해, 송지현, 백종찬, 조남백, 강재근, 손경오(한국공연예술문화기획), 원스페이스, 이앤씨커뮤니케이션스
맑음이벤트, 김봉식, 다원뮤지컬, 세방기획, 김종호, 대신전시(김기명), PMC프로덕션,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라이브아트, (주)케이티파워콤, 이양수,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 '딴따라', 양미경, 주부연극교실 '유혹', 한진택
유인철, (주)신원엠에스, (주)가람이엠에스, 클린코리아, 덕영엔지니어링, 김일매, 차중영, SR Ent,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송학천, 보화당, (주)퍼시스케이디, 김명산, 안산시건축사회, 유재학, (주)쇼플레이, 남양숙
아이디온, 주식회사 애드윅컴, 단청닷컴, 김광우, 자연미감, 신바람농자학교, 한국공예체험문화협회, And Clay, 아티스토리 미술
영농조합법인 아이빅스캠프, 쟈마트리, 천사부메랑, 사과와 당근 갤러리, 오형선, 정현욱, 권옥숙SRM

공연을 보기 전 관객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도 공연을 즐기는 한 가지 Tip(Tip)이다. 지난 달에 열렸던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과 안산문화재단의 5·6월 기획공연으로 대학로에서 이미 관객 동원이 증명된 연극 <뽕>과 <인디아블로그>의 관객 반응을 살펴 본다.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

사랑의 유효기간

글. 김정숙 (경기도 용인시)

연극 <그와 그녀의 목요일>은 프랑스 마리 카르 디날의 <샤를르와 롤라의 목요일>을 모티프로 한 연극이라고 했다. 고집이 센 건지, 신념이 강한 건지 모를 두 남녀가 매주 목요일에 만나 사랑에 관한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연극이었다. 너무나도 다른 남과 여는 친구와 애인 사이를 오고가며 사랑인지, 정인지 모를 감정을 주고받는 식으로 극이 진행됐다.

원래 남녀간의 사랑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라고 했다. 눈만 마주쳐도 불타오르던 두 사람이 친한 친구가 되는 사랑을 어릴적에는 비극이라 생각했다. 편안한 사이, 이제는 떨림이 없는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슬프다고 생각했었다. 연극 속 두 남녀가 치열하게 논쟁하던 사랑은 초기의 사랑을 넘어 '지켜가야 할 사랑'의 소중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지켜가는 것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연극 <인디아블로그>

유쾌한 연극 <인디아블로그>

글. 박주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도여행을 다녀 온지 꽤 됐는데... 그때는 너무나 힘들어서 다시는 이런 여행 안하리라 했건만, 시간이 지나니 다시 떠나고 싶은 알팍한 마음은 뭔지.

오랜만에 신랑과 함께 본 연극 <인디아블로그>, 지금의 신랑과 간 여행은 아니었지만 여행을 좋아하는 우리 둘이서 정말 공감 많이 하고 본 연극인 것 같다. 정말 여행을 떠나고 싶어지게 만드는 두 배우의 연기에 가슴이 설렜던 것 같다. 특히 인도 버스 노래에 너무 공감 돼서 박장대소했는데... 배우들이 직접 겪고 나서 연기해서 인지 사실적인 연기에 더 재미있었던 것 같다.

나 다시 돌아가고 싶다~

글. 김혜연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여행을 좋아하는 나. 하지만 직장 일에, 사는데 지쳐 어딘가 떠나는 게 부담스럽기만 했다. 대학 다닐 때는 열정적인 직장인이, 사회인이 되리라 다짐했건만. 귀찮이즘과 사그러든 열정으로 삶을 무기건조하게 말리고 있었다.

인도라는 공간, 음악과 여행이라는 자유로운 분위기는 지금의 내가 누리기에는 너무나 달라 보였지만, 연극 속에서 과거의 나를 다시 돌아보는 것 같아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 다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떨지, 예전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돌아다니며 재미있어 할지는 아직도 미지수이지만 무언가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메마른 일상에 단비처럼, 무더진 나의 꿈에 온기를 불어 넣어준 연극 <인디아블로그>. 다시 보고 싶은 연극 리스트에 올려 놓아야겠다.

Review

연극 <뽕>

직장인의, 직장인을 위한, 직장인에 대한 연극

글. 이지희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대학로극장에서 열린 연극 <뽕>,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도 열린다고 하니 이미 본 연극이었지만 기대가 된다. 직장생활에 지친 직장인에게 권해 주고 싶은 연극이라고 해서 더욱 흥미가 당겼다. 동료, 상사간의 암묵적 관계도를 여실히 보여주려 했는지 회사 내에서 자연스럽게 쓰는 실제적인 대사를 여과 없이 보여줘 공감도가 컸다.

특히 회사 안의 모습을 사회의 문제의식과 연결 지어 인상적이었다. 사슴의 뿔이라는 독특한 소재에서 이끌어 낸 것이라던가, 현대 직장인들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회사라는 커다란 집합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표현해 준 것 같았다.

자본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살 수 있을까, 무엇이 조금이라도 더 옳을 까하는 질문을 던져준 작품으로, 근래에 본 연극 중 재미와 생각을 동시에 던져 준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됐다.

나의 직장, 사회적 위치는 어떤지 다시금 생각하게 한 연극. 삶을 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아름다운 만남 나누미



나누미(美)란 '나누면 누구나 아름답다' 라는 뜻으로 경제적으로 공연관람이 힘든 소외 이웃들에게 공연을 선물하는 문화나눔 캠페인입니다. 지금, 문화나눔 회원이 되세요. 나눌수록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